

韓國 茶文化 | 茶器展

#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韓國 茶文化 | 茶器展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전시기간\_ 2004. 8. 26 ~ 2004. 12. 5

전시장소\_ 이천 세계도자센터  
Icheon World Ceramic Center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 일러두기

1. 이 도록은 <IAC 한국총회,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의 개최를 기념하여 기획된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전시도록이다.
2. 수록 작품은 특징에 따라 청자 7점, 다완 10점, 분청 6점, 백자 7점, 시유도 및 장식 다기 8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38명의 작가 작품이 수록되었다. 도판은 위의 순서이며, 각 항목별 작품은 작가의 연배순으로 게재하였다.
3. 작가의 경력은 작가가 제공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부족한 자료는 조사·보완하였다. 작가의 영문 이름은 작가가 사용하는 철자를 그대로 표기하였으며 일부 표기가 한글 로마자 표기법과 다를 수 있다.

## Notes to Readers

1. This catalogue is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the opening of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 and exhibition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2. This catalogue features 38 works by 7 Celadons, 10 Tea Bowls, 6 Buncheongs, 7 White Porcelains, 8 Earthen wares and Decorated Tea Wares. The plates are arranged in the above order. In each category the works are arranged according to artists age.
3. The biography of artists are based on the given information from artists, some insufficient information has been complemented. The name of the artists are written as they were provided, and some of them may be different from the Korean romanization system.

목차  
Contents

- 06** 인사말  
Foreword
- 남기명 Nam, Ki-Myong  
Secretary General,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 08** 한국의 차문화와 다기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 최 건 Choi, Kun  
Director of Joseon Royal Kiln Museum
- 27** 참여 작가 작품  
Works
- 청자 Celadon  
다완 Tea Bowl  
분청 Buncheong  
백자 White Porcelain  
시유도 및 장식다기 Earthen Ware and Decorated Tea Ware
- 67** 한국 차문화의 특성
- 박동춘 Park, Dong-Chun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East Asian Tea Culture
- 77** 작가 약력
- Biography

# 인사말

한국 도자의 중심지인 이천 세계도자센터에서 'IAC 한국총회'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와 더불어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기획하고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세계 IAC 회원들과 도예가들이 한국 문화의 숨겨진 매력을 탐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숨겨진 유산(The Hidden Legacy)”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총회의 성격에 맞추어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선정한 ‘차(茶)’라는 소재는 동양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차는 동양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각국의 정치, 경제, 역사, 자연환경에 따라 독특한 생활문화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차문화는 특히 ‘다기(茶器)’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다기의 미학적 특성을 보여준은 물론 생활문화로서 한국 차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 도자의 멋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다기, 다구, 차실 공간으로 보여주고, 다도 시음 및 시연행사와 연계하여 입체적인 행사를 구성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동양 차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술 체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IAC 한국총회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들과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관계자분, 특히 전시를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동아시아 차 연구회의 박동춘님과 태평양박물관, 광호문화재단, 해강도자미술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도록이 출판되기까지 정성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기립니다.

2004년 8월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

남기명

## Foreword

I am very pleased to present the special exhibition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to commemorate the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 I hope that all IAC members and ceramists enjoy the exhibition and that it helps them better understand Korean culture.

After long consideration, the WOCEF determined that 'tea' was the most befitting subject for the IAC 2004 General Assembly, to be held under the theme of 'The Hidden Legacy' of Asia. More than anything else, 'tea' best symboliz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East. The customs of drinking tea originated in China as many as 2000 years ago and eventually spread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Countries in the Far East China,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have developed their own unique tea cultures, which are products of their unique political, economic, and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s. Tea culture can be seen in 'tea vessels' and other tea ceremony appurtenances.

This exhibition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visitors to apprehend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Korean tea culture in everyday life, not to menti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tea vessels. The beauty and elegance of traditional pottery is shown in the setting of a tea room with tea utensils arranged beautifully with tea vessels. In addition to the actual display is a tea ceremony demonstration, to which visitors are invited to drink tea so that they can get some feel of the history and spirit of traditional Korean tea culture and Oriental tea culture in general.

I would like to thank the IAC members, who have traveled such a long way to Korea to attend the General Assembly. I also wish to acknowledge the contributions of Park Dong chun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East Asian Tea Culture, the Tea Museum of AmorePacific, Gwangho Culture Foundation of KwangJuYo, and the staff of Haegang Museum of Ceramic Art. My thanks also go to the artists who presented their works for this exhibition. Lastly, I really appreciate the staff of WOCEF, who have worked so hard to produce this beautiful catalogue.

August 2004

Nam, Ki-Myong

Secretary General,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 1. 차의 기원과 기능

>>> 차의 세계에서 성전(聖典)으로 알려진 육우(陸羽, 733~804년)의 책 『다경(茶經)』에는,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신농(神農)이 처음 차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널리 마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처음에는 치료와 건강을 돕는 약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기호음료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된 차는 예로부터 심신에 이로운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허준(許浚, 1546~1610년)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소화를 돕고 소변이 잘 나오며 독을 풀어주는 약리적 기능과 함께, 머리와 눈을 맑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의 정신적 기능이 강조되어 있다.

### 한국 차의 기원

한반도에는 단군시대부터 토종차인 백산차(白山茶)의 존재 가능성이 있었지만, 『삼국사기』에는 7세기 전기 신라 선덕여왕 때 처음 차가 들어오고, 흥덕왕 828년에 대렴(大廉)이 중국에서 가져온 차 씨를 지리산에 심으면서 널리 퍼졌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중국 차의 원산지인 화남지방과 기후 조건이 유사한 한반도 서남해안지방을 재배지로 선택한 것은 차의 성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다. 흥덕왕의 명에 따라 지리산에 심은 차는 온대성 지역인 중국 화남지방 특히 강서지역의 소엽종(小葉種)일 가능성이 높다.



청자 상감 운학문 완, 고려 13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靑磁 象嵌 雲鶴文 碗, 高麗 13世紀, 海剛陶磁美術館  
Bowl  
Celadon with Inlaid Crane and Cloud Design  
Goryeo Dynasty, 13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2. 왕가(王家)와 불가(佛家)의 차 - 삼국·통일신라시대

>>> 가야국에는 일찍부터 차를 마시는 풍습이 있어 중묘 제사에 술과 떡, 밥, 차, 과일을 차렸다 한다. 신라에는 승려 충담(忠湛, 869~940)이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부처께 차를 공양하고, 흥덕왕이 지리산에 차 씨를 심은 일이나, 최치원이 차를 선물로 받으면서 '신선끼리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문헌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삼국시대에는 왕실이나 불가(佛家)와 같이 특수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하던 차문화가 통일신라시대에 와서 귀족 관료 및 일반 승려계층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시 신라인들은 덩이차를 빵아 가루로 만든 말차(抹茶)를 마셨다고 한다.

### 삼국시대의 찻그릇

삼국시대의 토기 잔들은 갈색, 회청색이 갖는 고요한 색감과 단순함을 표현하였다. 차와 함께 술과 물을 담아 사용했던 다양한 기형의 토기 잔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토기 탁잔(右), 함안출토, 가야 4-5세기, 태평양박물관 소장

土器 托盞, 咸安出土, 伽倻 4-5世紀, 太平洋博物館

Cup and Stand(right)

Earthenware

Gaya Dynasty, 4-5th Century

The Tea Museum of AmorePacific

토기 탁잔(左), 예산출토, 고려 11-12세기, 태평양박물관 소장

土器 托盞, 禮山出土, 高麗 11-12世紀, 太平洋博物館

Cup and Stand (left)

Earthenware

Gaya Dynasty, 11-12th Century

The Tea Museum of AmorePacific



### 3. 귀족과 관료 · 사대부의 차 - 고려시대

>>> 고려시대는 차문화의 전성기였다.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 후삼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각지의 군민과 승려에게 곡식, 옷감과 함께 차를 내린 사실은, 이미 10세기 초기에 차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 고려 왕조는 궁궐 안에 다방(茶房)을 두어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 세시행사(歲時行事)와 종묘제사(宗廟祭祀) 등 크고 작은 궁중행사에 차를 만들어 올렸다. 큰 도시에는 다점(茶店)이 있어 자유롭게 차를 사 마실 수도 있었으며, 차 맛을 비교하며 품평하는 명전(茗戰, 鬪茶)이 승려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하였다.

>>> 고려 전기의 차문화는 국가행사를 중심으로 왕가와 귀족 관료, 신분 높은 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의례적이고 고급스러운 경향이 강했으나, 후기로 가면서 문인 사대부와 일반 승려 등의 지식인층에 의해 소박하고 간결한 경향으로 바뀌어 갔다.

#### 고려시대의 찻그릇

1123년에 개경을 다녀간 송나라의 서경(徐兢)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고려인들은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하여 다구를 더욱 잘 만드는데, 금꽃이 있는 검은 잔(錦華鳥盞), 비색의 작은 찻잔(翡色小盞), 은화로(銀爐), 차술(湯鼎) 등이 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로 보아 당시 고려는 다양한 다도구와 품격이 갖추어진 차 그릇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가마터에서 다수 출토된 청자 다완(茶碗), 청자 통형잔 등은 대표적인 찻그릇의 유형이다.



청자 상감 뇌문 잔(右), 고려 12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靑磁 象嵌 雷文 盞, 高麗 12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right)  
 Celadon with Inlaid Thunder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청자 퇴화 화문 마상배(中), 고려 12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靑磁 堆花 花文 馬上杯, 高麗 12世紀, 海剛陶磁美術館  
 Stem Bowl (middle)  
 Celadon with Underglazed White Slip Decoratio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청자 상감 국화문 잔(左), 고려 12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靑磁 象嵌 菊花文 盞, 高麗 12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left)  
 Celadon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Goryeo Dynasty, 12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4. 유·불·선 지식인들의 차 - 조선시대

>>> 조선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불가(佛家)의 차는 다소 쇠퇴하는 반면, 유(儒)·불(佛)·선(禪)의 교양을 익힌 지식인들과 문인 사대부들 사이에 새로운 조선식 차문화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다례(茶禮)가 술을 포함하는 주다례(酒茶禮)로 바뀌면서 비중은 낮아졌지만 국가와 왕실의 행사에 차를 올리는 관례도 지속되었다.

>>> 대의명분을 위한 관례적이며 의식적인 다례(茶禮)에서,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고 인간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인격 수양의 기능을 하는 차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도 이 시기였다. 특히 가난함을 편하게 여기고 도를 배우는 즐거움[安貧樂道]의 삶을 최선으로 생각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차를 다려 마시는 일 자체가 도(道)와 덕(德), 예(禮)와 의(義)를 실천하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한 과정이었다.

#### 조선시대의 찻그릇

조선전기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던 그릇은 금속기였으나 성리학적 정신과 재정적 문제로 화려한 금속기보다 도자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도자는 분청사기에 이어 백자가 제작되고 임진왜란 이후 백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잔은 분청사기와 백자 모두 자연스럽게 너그러우면서도 긴장감을 잃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분청 인화 '예빈'명 대접, 조선 15세기, 조선관요박물관 소장

粉靑 印花「禮賓」銘大椀, 朝鮮 15世紀, 朝鮮官窯博物館

Bowl

Buncheong with Inscription of Ye-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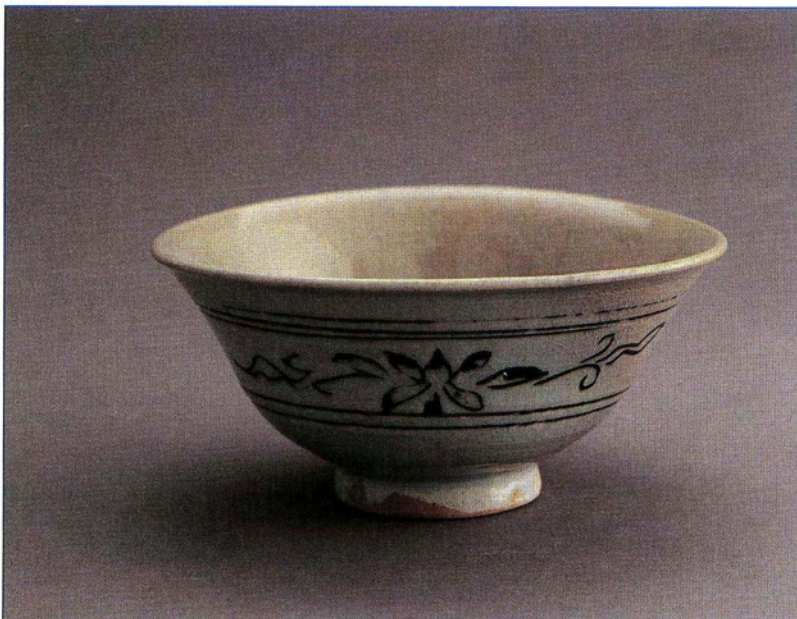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5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5.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 의순

>>> 중국에 다성 육우(陸羽, 733~804)가 있고, 일본에 센리큐(千利休, 1522~1591)가 있다면 한국에는 초의(艸衣) 의순(意恂, 1786~1866)이 있다. 의순은 선(禪)과 교(敎)에 정통한 승려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문하에서 유학과 시문을 배우고, 52세에 한국 최초의 차 전문서인 『동다송(東茶頌)』을 지었다. 이 책에는 차의 생태와 효능, 중국차, 우리 차의 우수함, 차 만들기, 차 달이기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 초의 의순은 “잘 만든 찻잎에 좋은 물로 알맞은 분량을 조절하여 중(中)을 얻고, 찻물이 잘 우러나 화(和)를 얻으면 비로소 중도(中道)를 얻을 수 있다”며, 차를 유교적 윤리관에 비유하였다. 또한 『다신전(茶神傳)』에서는 “정조결(情燥潔)하면 다도진의(茶道盡矣)”라고 하여, ‘정성으로 만들고, 건조하게 저장하고, 청결하게 다려 마시면 다도의 완성이 다’라는 명쾌한 해석을 내렸다. 그에 따르면 한국적 다도는 허례허식보다 내면의 진중함을 중요시하고 정성을 다하면 서도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백자 상감 모란문 대접, 조선 15세기, 조선관요박물관 소장  
白磁 象嵌 牡丹文 大椀, 朝鮮 15世紀, 朝鮮官窯博物館  
Bowl  
White Porcelain with Inlaid Peony Design  
Joseon Dynasty, 15th Century  
Joseon Royal Kiln Museum

## 6. 차와 찻그릇

>>>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찻그릇이라는 말은 도자기 그릇을 가리키게 되었다. 특히 유리질 유약을 씌운 청자나 백자, 흑자와 같은 자기(磁器) 그릇을 지칭하는데, 자기는 근대 이전 공예 소재였던 도기, 금속기나 목칠기, 유리 옥기 등과 비교할 때 찻그릇으로서 몇 가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자기(磁器)라는 소재는 무미무취(無味無臭)이며, 표면에 유리질 유약을 씌워 매끄럽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료가 풍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온으로 구워내면 진중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옅은 맛과 가는 향(香)의 찻물을 담기 위해 다양한 재료의 그릇 가운데 무미무취의 청결한 자기그릇이 사용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 백자 소문 양이잔(右), 조선 15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白磁 素文 兩耳盞, 朝鮮 15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right)  
White Porcelain  
Joseon Dynasty, 15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백자 소문 양이잔(中), 조선 15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白磁 素文 兩耳盞, 朝鮮 15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middle)  
White Porcelain  
Joseon Dynasty, 15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분청 덩벙문 고족배(左), 조선 15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粉靑 粉粧文 高足杯, 朝鮮 15世紀, 海剛陶磁美術館  
Stem Bowl (left)  
Buncheong with Underglazed White Slip  
Joseon Dynasty, 15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Joseon Royal Kiln Museum



## 7. 찻그릇의 형태와 이름

>>> 찻그릇은 아주 다양하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재질이 다르며 차의 종류에 따라 형태 또한 다르다. 대발(大鉢)과 대접(大椀), 접시(碟匙)는 상 위에 놓고 수저로 떠먹기 알맞은 그릇이다. 음료를 담아 손으로 들고 마시는 그릇은 구(盃), 완(碗, 碗), 배(盃), 종(鐘), 잔(盞) 등이지만,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 구(盃)는 입이 넓게 벌어진 V자형으로 굽이 작고 아담하다. 완(碗, 碗)은 발(鉢)과 구보다 작고 형태는 중간 정도이며, 배(盃)는 몸통이 둥글고 입이 좁아진 것이며, 종(鐘)은 'U'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완과 배 보다 작다. 조선시대에는 구와 같은 형태가 아주 드물다. 보통 발(大鉢) 보다 작은 중발(中鉢) 소발(小鉢)이 있으며, 많은 양의 종과 잔이 남아 전한다. 일본에서 말하는 다완(茶碗)은 조선 전기의 중발 정도의 규모이다.

>>> 구는 비교적 크고 넓게 벌어져 말차(抹茶)를 타기 편한 형태이다. 완은 찻잎을 우려 낸 찻물(煎茶)을 담고 배는 오무라져 있어 차향기를 모을 수 있다. 종과 잔도 전차에 쓰인다. 고려·조선시대를 통틀어 보면, 고려전기(10-11세기)에 구가 많으며, 중기에 구의 양이 줄어들고 고급화하면서 완과 배가 늘어나고, 말기에는 구가 적다. 조선시대에는 중발, 소발, 종, 잔이 중심이 되고 드물게 완과 배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말차가 유행하다가 고려중기부터 전차가 등장하고 점차 전차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분청 귀얄문 완(右), 조선 16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粉靑 碗, 朝鮮 16世紀, 海剛陶磁美術館  
Bowl (right)  
Buncheong with brushed white slip  
Joseon Dynasty, 16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분청 덩벙문 잔(中), 조선 16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粉靑 粉粧文 盞, 朝鮮 16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middle)  
Buncheong with Underglazed White Slip  
Joseon Dynasty, 16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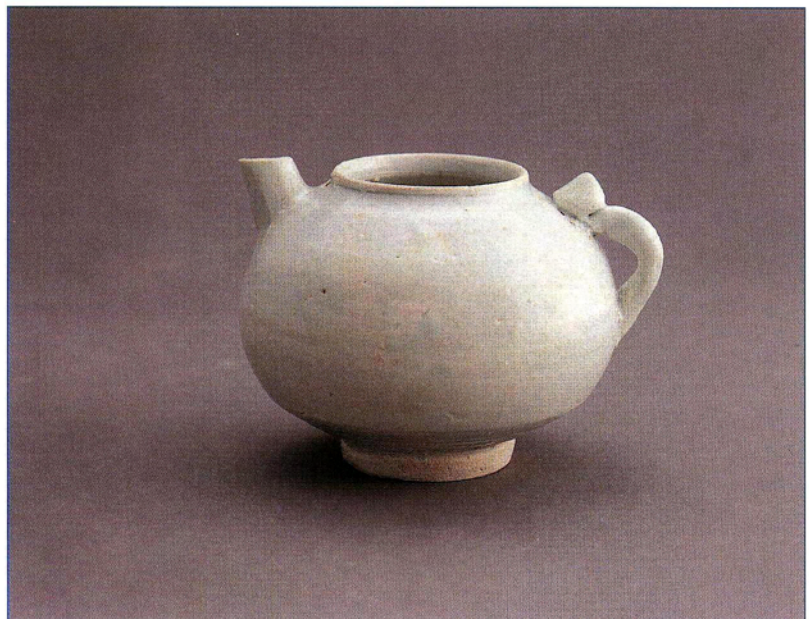
분청 덩벙문 잔(左), 조선 16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粉靑 粉粧文 盞, 朝鮮 16世紀, 海剛陶磁美術館  
Cup (left)  
Buncheong with Underglazed White Slip  
Joseon Dynasty, 16th Century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 8. 조선전기 백자 발(鉢)과 일본의 다완

>>> 일본은 100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3-1592)가 시작되면서 지배세력의 교체와 함께 새로운 문화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차의 세계에서도 다도가 엄격하고 웅장한 중국풍의 서원(書院) 다도(茶道)에서 간소하고 한적한 일본식 초암(草庵) 다도로 변하였고, 따라서 찻그릇도 중국의 완성도 높고 화려한 그릇을 뒤로하고 조선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지방산 백자나 일본산 그릇을 선택하게 되었다.

>>> 초암 다도(草庵茶道)의 새로운 개념인 '와비(わび)'는 “부족한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꺼리는 심리”를 의미하며, 물질적 풍요를 벗어나 한적한 일탈의 경지를 희구한 끝에 도달하게 되는 일본 중세적 미의식을 가리킨다. 일본의 다인(茶人)들은 16세기 조선 남부 해안지방의 하품(下品) 백자에서 이러한 '와비'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 '고려다완'이라고 불리는 이 백자 그릇들은 원래 중앙 관요(官窯)에서 만드는 상품(上品) 갑번(匣燻) 백자의 형태가 지방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빠르고 속도감 있는 물레 성형 흔적, 간편한 굽깎기, 상번(常燻)이 용이한 높은 굽, 조잡한 태토(胎土)와 낮은 온도 등은 수준 낮은 지방산 하품백자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그들은 이 그릇을 최고의 다완으로 선택하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고 숭고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백자 주자, 조선 16세기, 조선관요박물관 소장  
白磁 注子, 朝鮮 16世紀, 朝鮮官窯博物館  
Ewer  
White Porcelain  
Joseon Dynasty, 16th Century  
Joseon Royal Kiln Museum

## 9. 차나무의 속성과 종류

>>> 차나무는 동백과에 속하는 다년생 종자식물로서 사철 잎이 푸르며, 초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짙레꽃 같이 작은 흰색 꽃을 피운다. 열매는 추운 겨울에 여물고 해를 지나 다시 새 꽃이 피는 가을에 떨어진다. 교잡이 쉬워 다양한 변종이 가능하며 수명은 150년 정도이다.

>>> 종류는 온대지방의 소엽종(小葉種; 동아시아종)과 아열대지방의 대엽종(大葉種; 동남아 인도종)으로 크게 나뉜다. 찻잎이 4~6cm로 작은 소엽종은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 가공한 녹차(綠茶)를 만들고, 잎이 15cm 정도로 큰 대엽종은 발효 과정을 거쳐 오롱차·보이차·홍차를 만든다.

>>> 우리나라의 경우 차나무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서남해안지방에서 잘 자란다. 현재 차의 주 생산지는 보성, 강진, 광양, 구례, 해남, 하동, 산청, 순천 등이며 제주도에도 넓은 차원(茶園)이 조성되어 있다.

#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Choi, Kun | Director of Joseon Royal Kiln Museum

## 1. Origin and Effects of Tea

“*Ch’a Ching*”, circa 780 AD, the first book on tea by the Chinese author Lu Yu, is still regarded as the authoritative volume. It states that Shen Nung, the legendary emperor of China, discovered tea in 2737 B.C. Since then, tea has gained popularity throughout the world to become the world’s favorite beverage.

Tea was first used as medicine for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health. Tea then gained wide popularity as a pleasurable drink and is now the most consumed beverage throughout the world. *Dongeu bogam (Exemplar of Korean Medicine)* by Heo Jun (1546~1610) of the Joseon Dynasty records that tea had medical efficacy to promote digestion and urination and was an antidote, with emphasis on its function as a pacifier of minds.

### Origin of Korean Tea

The history of Korean tea goes back almost 5,000 years. Choeu Eusun (1786~1866), a revered monk of the Joseon Dynasty, wrote in his book titled *Dong da song (Hymns to Korean Tea)* that the Koreans began growing and drinking tea as early as 5000 years ago during the Dangun period, which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local tea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ccording to the twelfth century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by a Korean author, tea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Silla Kingdom during the reign of Queen Seondeok, and it was not until 828 during the reign of King Heungdeok of Silla, when Daeryeom planted the seeds of tea he had brought from China on Mt. Jirisan, that tea was consumed throughout Korea.

The tea planted on Mt. Jirisan by royal order of King Heungdeok was very likely *Camellia sinensis* that originated in a temperate region of south China. The fact that Silla selected the southwestern coa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climate conditions are similar to those in south China, indicates that Korea ha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roperties of tea at that time.

## 2. Tea for Royalty and Buddhist Aristocrats–The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

In Gaya, a small ancient Korean state (42 A.D.~532 A.D.), there were customs for drinking tea. During the ancestral ritual ceremony, tea was presented together with spirits, rice cakes, boiled rice, and fruits. The facts that (1) Chungdam, a monk of the Silla Kingdom, offered tea to a Maitreya statue at Samhwaryeong Peak of Mt. Namsan in Gyeongju, (2) that King Heungdeok ordered tea planted on Mt. Jiri, and (3) that Choe Chi won, a scholar of the late Silla, said tea was gift given and received among hermits when he was given tea as gift all show that tea culture, which had previously been the province of only the royalty and aristocratic Buddhist class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had spread to the aristocracy, government officials, and ordinary monks.

*Samguk yusa* records that Silla people drank powdered tea produced by grinding tea leaves.

### Tea Vessels of the Three Kingdoms

Earthenware is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our cultural heritage. It contains the life an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Different types of earthenware were produced to serve the needs of life from region to region and throughout the years.

Earthenware cups to contain tea, liquor, and water were produced in various shapes depending on the time they were made. Particularly interesting are cups in the shape of **an antler**, and hieroglyphic cups in the shape of an antler with a **wagon wheel** and shape of a duck. Cups with handles were also made in diverse shapes in various sizes and differently shaped handles.

These cups from the Three Kingdom impress us with the beauty of the times. They show us the variety of simple shapes in toned down colors of brown and grayish blue. The earthenware cups for tea, liquor, and water show us the life and culture of our ancestors at the time.

### 3. Tea for Gentry, Bureaucrats, and Literati–Goryeo Dynasty

The Goryeo period was the heyday of tea culture. Taejo Wanggeon, founder of the Goryeo Dynasty, granted grain, cloth, and tea to ordinary people and monk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the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This proves that tea was popular countrywide in Korea in the early tenth century.

The Office of Tea was established inside the palace to produce teas for all royal events, big and small, including the two largest state Buddhist festivals of Palgwanhoe and Yeondeunghoe, the New Year's Day celebration, and rites at **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 There were tea stores in cities where people could buy and drink teas. Competitions among monks to drink and evaluate the taste and flavor of tea became popular.

In the early Goryeo period, a ritualistic and opulent tea culture of the royalty, aristocrat bureaucrats, and high ranking monks prevailed, led by state ceremonial rituals. Towards the late Goryeo period, tea culture became simpler as it spread to the literati scholars and ordinary monks.

#### Tea Vessels of the Goryeo Dynasty

The Goryeo period was the heyday of celadon culture, and it witnessed tremendous development in the culture of tea. Cups from Goryeo have an aristocratic and elegant beauty. As tea was an integral part of ceremonial rites and festivals including Palgwanhoe and Yeondeunghoe, tea cups were made with great care and show the essence of Korean ceramics. Since tea was introduced to Korea from China around the seventh to eighth centuries, it quickly came into use by the royalty, aristocracy, and Buddhist monks. Demand for ceramic tea cups increased sharply at this time.

*Gaolu tujing* (Illustrations on Goryeo), written by Chinese author Xu jing, who had been to Gaegyeong (today's Gaeseong), the capital of Goryeo, after he returned to Sung China recorded, 'Goryeo people produce tea utensils

of good quality as they love drinking tea. Black cups decorated with golden flowers, small jade green tea cups, silver **braziers**, and tea brushes of very high quality were made, showing that a variety of tea utensils and elegant tea cups were used during the Goryeo period. Goryeo celadon cups unearthed from the kiln sites of Goryeo are the most representative tea cups of Goryeo.

#### **4. Tea for Learned Confucian Scholars, Buddhists, and Zen Masters–Joseon Dynasty**

Tea customs continued to be practiced at state and royal ceremonial rites in the Joseon Dynasty. Although tea became less important at such events as the previous tea ceremony had become a liquor tea ceremony, the cause of tea continued to be practiced. Because heavy restrictions were put on Buddhist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the culture of the literati scholars filled the void and a new tea culture came into being, established by intellectuals who were educated in Confucianism, Buddhism, and Zen.

There was a great change in tea culture, from the conventional, ritual tea ceremony to serve a cause to one which connected nature and humanity and served as means to cultivate one's mind, purifying the human spirit and emotions. Furthermore, the intellectuals of Joseon, who regarded **being content in poverty and taking pleasure in honesty** as the goal of life, the act of making and drinking tea itself was a means of practicing ethics, morality, etiquette, and justice. It was seen as one process for **moral training and home management**.

##### **Tea Vessels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decline of Buddhist culture, tea culture entered a period of hiatus in Joseon, but the customs were preserved. Records state that the royal family had tea ceremonies as part of its daily routine and on special occasions when receiving foreign envoys.

In the early Joseon period, most of the vessels used in the royal court were metallic. However, ceramic vessels gradually came into favor over opulent metallic ones as Neo Confucianism came to hold greater sway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became tight. During the early Joseon, *buncheongware* was widely produced, followed by white porcelain. Since the invasion of Japan of 1592, white porcelain became the major type of tea vessels of Joseon.

Tea cups from the Joseon period, both *buncheongware* and white porcelain, were decorated with beautiful motifs, and they imparted a sense of naturalness and generosity, yet never losing moderation, which is also clearly seen in the shapes.

## 5. Choeu Eusun, the Greatest Master of Tea

If Yu Lu (733~804) and Sen no Rikyu (1522~1591) were the great masters of tea in China and Japan, Yi Gyu bo (1168~1241) and Choeu Eusun (1786~1866) were the great tea masters of Korea. Choeu Eusun was a Buddhist monk who was broadly learned in both the Seon and Zen doctrines. He studied **Confucianism** and literature as a disciple of Dasan Jeong Yag yong, a great scholar of Joseon. Eusun composed *Dong-da-song (Hymns to Korean Tea)*, the first Korean book specialized in tea, when he was 52.

In *Dong-da-song* are included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properties and efficacy of tea, Chinese tea, and the excellent quality of Korean tea, and directions on how to make and boil tea water. Eusun likened tea to Confucian ethical philosophy saying that well grown tea, good quality water, the adding of proper amounts, and good boiling of tea water allow us to get to a **happy medium**. In his other book on tea, *Da-sin-jeon*, Eusun wrote that the Da-do (Way of Tea) would be reached only when tea is produced with devotion, stored in dry place, and

boiled clean.

The Korean tea ceremony is based on a philosophy that upheld simplicity and purity rather than boisterous and highly elaborate ceremony, while giving every care in making and drinking tea, as the Koreans regarded prudence of greater importance.

## **6. Tea and Tea Vessels**

With tea gaining popularity, tea vessels came to refer to ceramic vessels. More specifically, tea vessels mean celadon, white porcelain and black porcelain ceramics with glass glazed surfaces. Ceramic vessels have greater benefits compared with earthenware, metallic and wooden lacquered **ware**, and vessels made of glass and jade.

The material of ceramics is tasteless, and the glass glazed surface is more hygienic and easier to clean. Furthermore, the raw materials for ceramics are abundant and cheap, and firing at high temperature reveals the beauty of dignity. It is very natural that ceramic vessels, being composed of tasteless, clean materials should be used to contain tea with elegantly delicate light tastes and flavors.

## **7. Shapes and Names of Tea Vessels**

There is an enormous variety of tea vessels. Different materials were used to make vessels through the centuries and in different regions. The shapes of tea vessels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ea. Bigger bowls called

*daebal*, *daejeop*, and *jeopsi* are for teas put on a table and drunk with a spoon. Smaller hand held vessels for drinking teas are classified into groups named *gu*, *wan*, *bae*, *jong*, and *j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lineate clearly among them.

*Gu* refers to a V shaped bowl with wide mouth and small bottom. *Wan* is smaller than *gu* or *bal* in size, and its shape is in between *bal* and *gu*. *Bae* has a round body and narrow mouth. *Jong* is in the upside down shape of “U” and smaller than *wan* or *bae*. Those in the shape of *gu* are very rare in Joseon tea vessels. Mid and small sized-*bal*, called *jungbal* and *sobal*, were more commonly used, and *jong* and *jan* from Joseon are extant in large numbers. Japanese tea bowls called *chawan* are nearly the same size as Joseon *jungbal*.

It is easy to stir powdered green tea called *matcha* in the wide mouthed *gu*. *Wan* is used to serve *sencha* (green tea leaves), and *bae* keeps the fragrance of tea as its body is round and mouth is narrow. *Jong* and *jan* are also used for *sencha*. In the tenth and eleventh centuries during the early Goryeo, *gu* was widely used. Towards the mid Goryeo period, the use of *gu* declined, but its quality was improved and more refined. By this time *wan* and *bae* had become more widely used. Towards the late Goryeo period, use of *gu* continued to fall. During the Joseon period, *jungbal*, *sobal*, *Jong*, and *jan* were most widely used; *wan* and *bae* were rarely used. The changes in tea bowl shapes indicate that *matcha*, or powdered green tea, was popular before the appearance of *sencha* in the mid Goryeo, which gradually became the major tea on the Korean Peninsula.

## **8. *Bal*, White Porcelain from Early Joseon and *Chawan*, Japanese tea bowl**

The Momoyama period (1573~1592) began in Japan after the collapse of the Muromachi shogunate. The shift in power led to changes in the world of art and culture, including the realm of tea culture. The tea ceremony of

exclusivity and grandeur of the Chinese Confucianist ritualistic style in the preceding period began to disappear, and tea ceremonies were now held in a separate house based on a typical Japanese farmer's rustic hut, and simple ordinary white porcelain produced at local kilns in Joseon and Japan replaced the colorful, refined tea vessels from China.

The tea ceremony began to evolve its own aesthetic, especially that of 'wabi.' Wabi represents a comprehensive Japanese worldview or aesthetic system, meaning the beauty of things imperfect and incomplete, and the beauty of things modest and humble. The tea culture of Japan at the time found the beauty of 'wabi' in the lower quality porcelain produced at the kilns on the south coast of Korea in the sixteenth century, which was called 'Goryeo Dawan.'

These Goryeo Dawan porcelain bowls appeared when countryside local kilns began to produce porcelain vessels like those that had previously been produced only at the royal kilns. Goryeo Dawan are characterized by rapid throwing; simple turning of a foot ring; and use of a high foot ring for firing, low quality clay, and low temperature firing, which were common to low quality porcelain produced at local kilns countryside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Japanese considered these vessels from Korea to be the best tea bowls and believed that they would bring peace and happiness to the mind.

Recently, these porcelain tea bowls have been called '*chat-sabal* or *mak-sabal*.' This is incorrect. *Sabal* refers to *bal*, a vessel made of ceramics, for which a spoon is used to drink tea. *Bal* is for drinking and is to be held in the hands. Use of the word *mak* in *mak-sabal* is not proper because it used to name Korean made ceramic vessels from the end of Joseon to the Japanese occupation. Thus, it is not proper to refer to Goryeo *dawan* as *mak-sabal*.

## 9. Story of Tea

The Chinese character for tea, 茶, was created by combining 草 (meaning grass), 人 (meaning human), and 木 (meaning tree).

### The Tea Plant and Tea Processing

The tea plant is an evergreen of the Camellia family. It produces dark green, shiny leaves and small, white blossoms from early autumn to early winter. Its fruit ripens during winter and falls in the next fall. Because the crossing of tea trees is very easy, there is great variation in species. The life span of a tea plant is 150 years.

There are two main varieties of the tea plants. The small leaf variety known as *camellia sinensis* thrives in the cool, high mountainous regions in East Asia. The broad leaf variety known as *camellia assamica* grows best in the moist, tropical climates of Northeast India and Southeast Asia. Green teas referred to as non-fermented teas are produced from the small leaves of *camellia sinensis* (4~6 cm). This kind of tea preserves the healthy and natural elements of the fresh leaves. From the *camellia assamica*, the leaves of which are as long as 15cm, fully-fermented teas of Oolong tea, Pu-erh tea and black tea are produced.

In Korea, tea plants grow best along the warm and humid southwest coast. Boseong, Gangjin, Gwangyang, Gorye, Haenam, Hadong, Sancheong, and Suncheong are the major tea producers in Korea. There is also a large tea plantation on Jejudo Island.

여 백



여 백

유근형 | 柳根滢 Yu, Keun-Hyung

청자 진사채 완(靑磁 辰砂彩 碗)

Celadon Tea Bowl with Copper-Red Underglaze



방철주 | 方徹柱 Bang, Chul-Ju

청자 음각 모란문 다기 세트(靑磁 陰刻 牡丹文 茶器)

Celadon Tea Ware with Incised Peony Design

청자 음각 파도어문 잔탁(靑磁 陰刻 波魚文 盞托)

Celadon Cup and Stand with Incised Wave and Fish Design

청자 음각 모란당초문 완(靑磁 陰刻 牡丹唐草文 碗)

Celadon Tea Bowl with Incised Peony Scroll Design

청자 상감 인화문 완(靑磁 象嵌 印花文 碗)

Celadon Tea Bowl with Inlaid Stamped Floral Design



유광열 | 柳光烈 Yu, Kwang-Youl

청자 과형 다기 세트(靑磁 瓜形 茶器)

Celadon Melon-Shaped Tea Ware

청자 상감 인화문 완(靑磁 象嵌 印花文 碗)

Celadon Tea Bowl with Inlaid Stamped Floral Design

청자 상감 동자문 완(靑磁 象嵌 童子文 碗)

Celadon Tea Bowl with Inlaid Children Design



김대희 | 金大熙 Kim, Dae-Hee

청자 인화문 다기 세트(靑磁 印花文 茶器)

Celadon Tea Ware with Stamped Floral Design



손유순 | 孫有順 Sohn, Yoo-Soon

청자 상감 화당초문 다기 세트(靑磁 象嵌 花唐草文 茶器)  
Celadon Tea Ware with Inlaid Flower Scrol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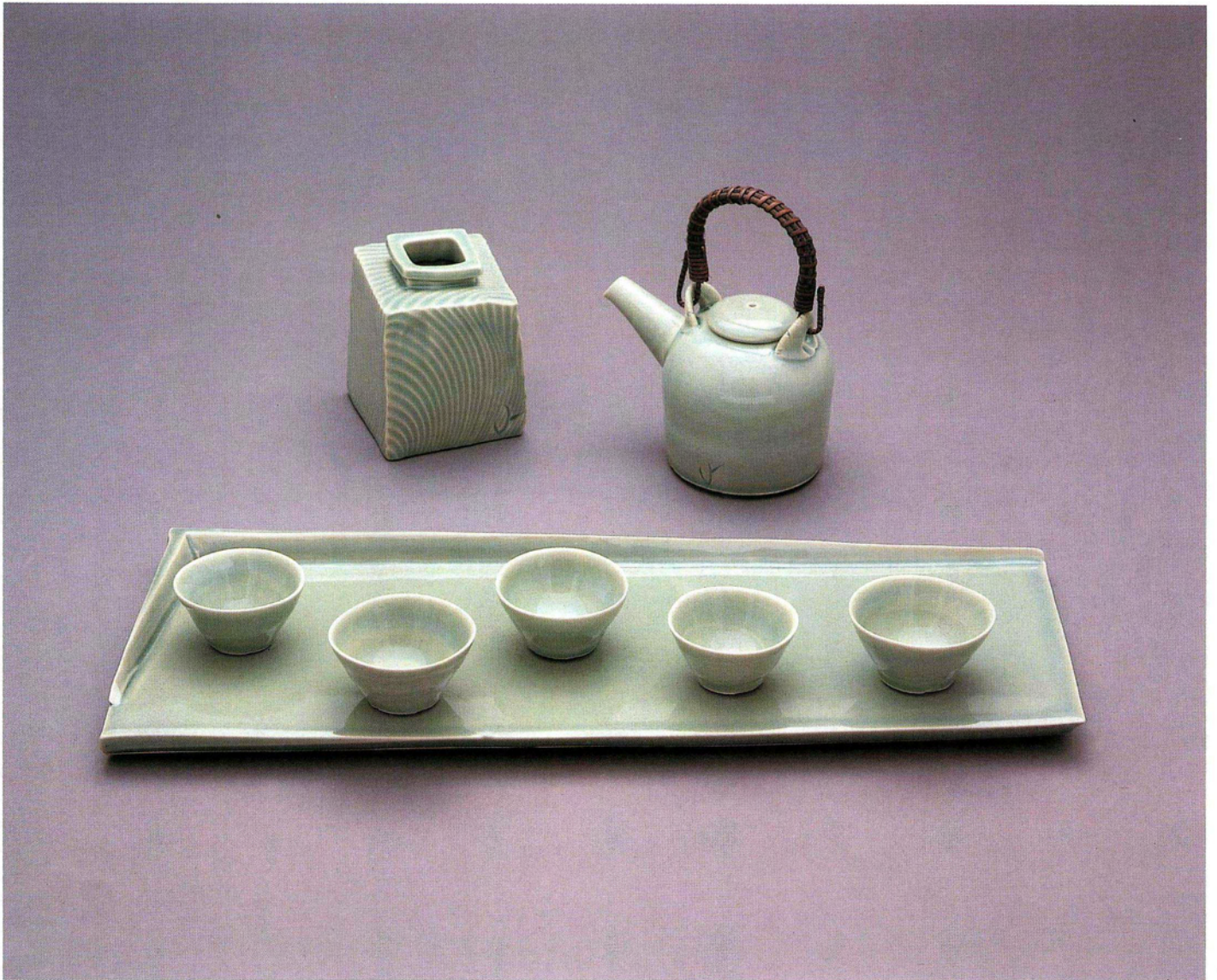
김판기 | 金判基 Kim, Pan-Ki

청자 음각 모란문 다기 세트(靑磁 陰刻 牡丹文 茶器)  
Celadon Tea Ware with Incised Peony Design



이은범 | 李殷範 Lee, Eun-Bum

청자 다기 세트(靑磁 茶器)  
Celadon Tea Ware



천한봉 | 千漢鳳 Chun, Han-Bong

다기 세트(茶器)

Tea Ware



김응한 | 金應漢 Kim, Eung-Han

다완(茶碗)  
Tea Bowl



김윤태 | 金允泰 Kim, Yoon-Tae

다기 세트(茶器)  
Tea Ware



서동규 | 徐東圭 Seo, Dong-Gyu

다완(茶碗)

Tea Bowl

회유 정호다완(灰釉 井戶茶碗)

Stoneware Tea Bowl with Gray Glaze



김태한 | 金太漢 Kim, Tae-Han

다완(茶碗)  
Tea Bowl



박부원 | 朴富元 Park, Boo-Won

흑갈유 다완(黑褐釉 茶碗)

Stoneware Tea Bowl with Black and Brown Gla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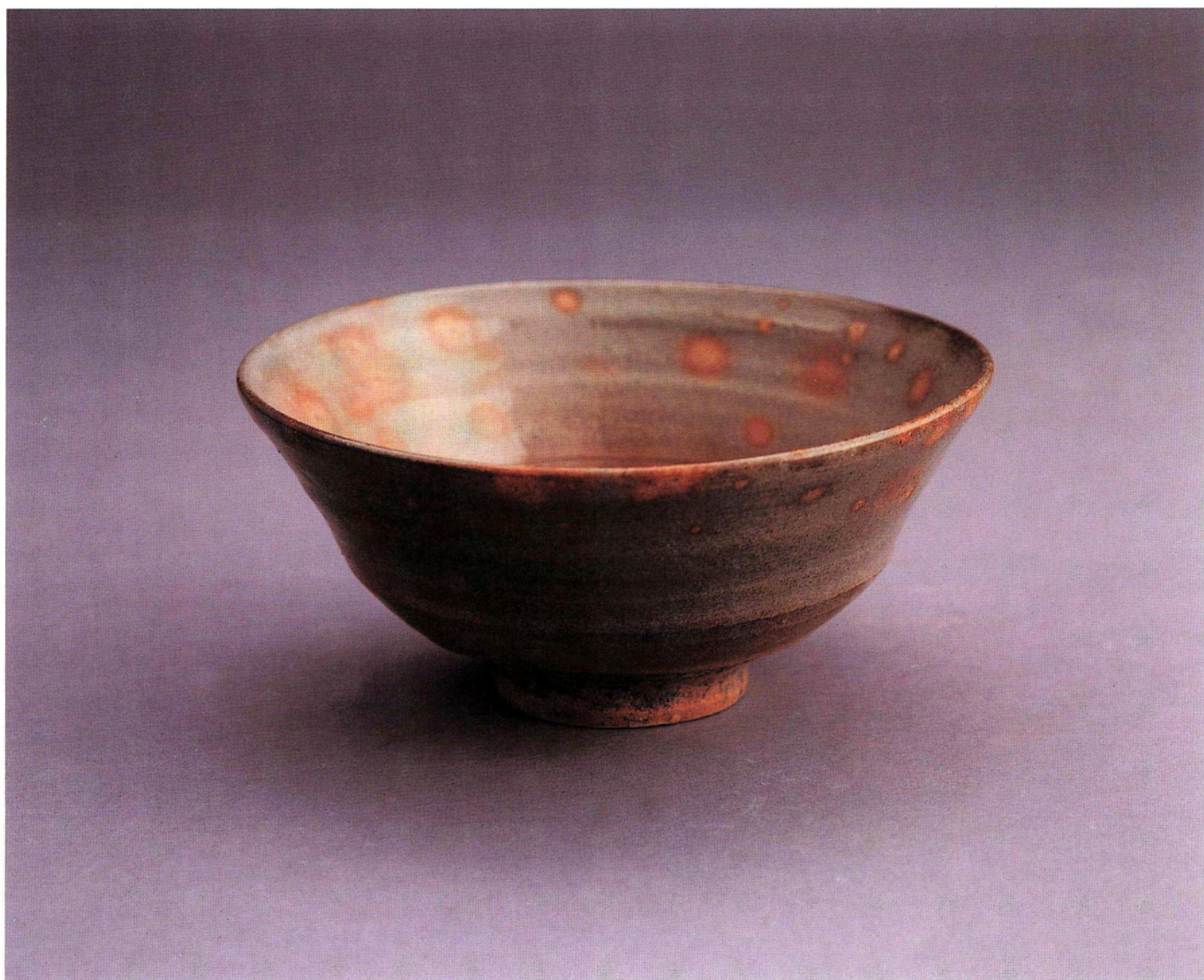
다완(茶碗)

Tea Bowl



민영기 | 閔泳麒 Min, Yeong-Gi

다완(茶碗)  
Tea Bowl



이정환 | 李廷圜 Lee, Jung-Hwan

다완(茶碗)  
Tea Bowl



서영기 | 徐詠紀 Seo, Young-Gi

다완(茶碗)  
Tea Bowl



이학천 | 李鶴天 Lee, Hak-Chun

다완(茶碗)  
Tea Bowl



이정도 | 李正道 Lee, Jung-Do

분청 인화문 다기 세트(粉靑 印花文 茶器)

Buncheong Tea Ware with Stamped Floral Design



김상만 | 金相萬 Kim, Sang-Man

분청 다기 세트(粉靑 茶器)  
Buncheong Tea Ware



김 평<sup>1</sup> 金 平 Kim, Pyung

다기 세트(茶器)  
Tea Ware



이동식 | 李東式 Lee, Dong-Sik

분청 다기 세트(粉靑 茶器)  
Buncheong Tea Ware



허상욱 | 許庠旭 Huh, Sang-Wook

분청 박지 모란문 다기 세트(粉靑 剝地 牡丹文 茶器)  
Buncheong Tea Ware with Sgraffito Peony Design



박성욱 | 朴星昱 Park, Sung-Wook

분청 다기 세트(粉靑 茶器)  
Buncheong Tea Ware



한일상 | 韓日相 Han, Il-Sang

백자 양각 연화문 다기 세트(白磁 陽刻 蓮花文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with Carved Lotus Design



정연택 | 鄭淵澤 Chung, Yeon-Taek

백자 다기 세트(白磁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청화 백자 접시(靑畵 白磁 碟匙)

Blue and White Porcelain Dish



이영호 | 李英鎬 Lee, Young-Ho

백자 다기 세트(白磁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이기조 | 李起助 Lee, Ki-Jo

백자 다기 세트(白磁 茶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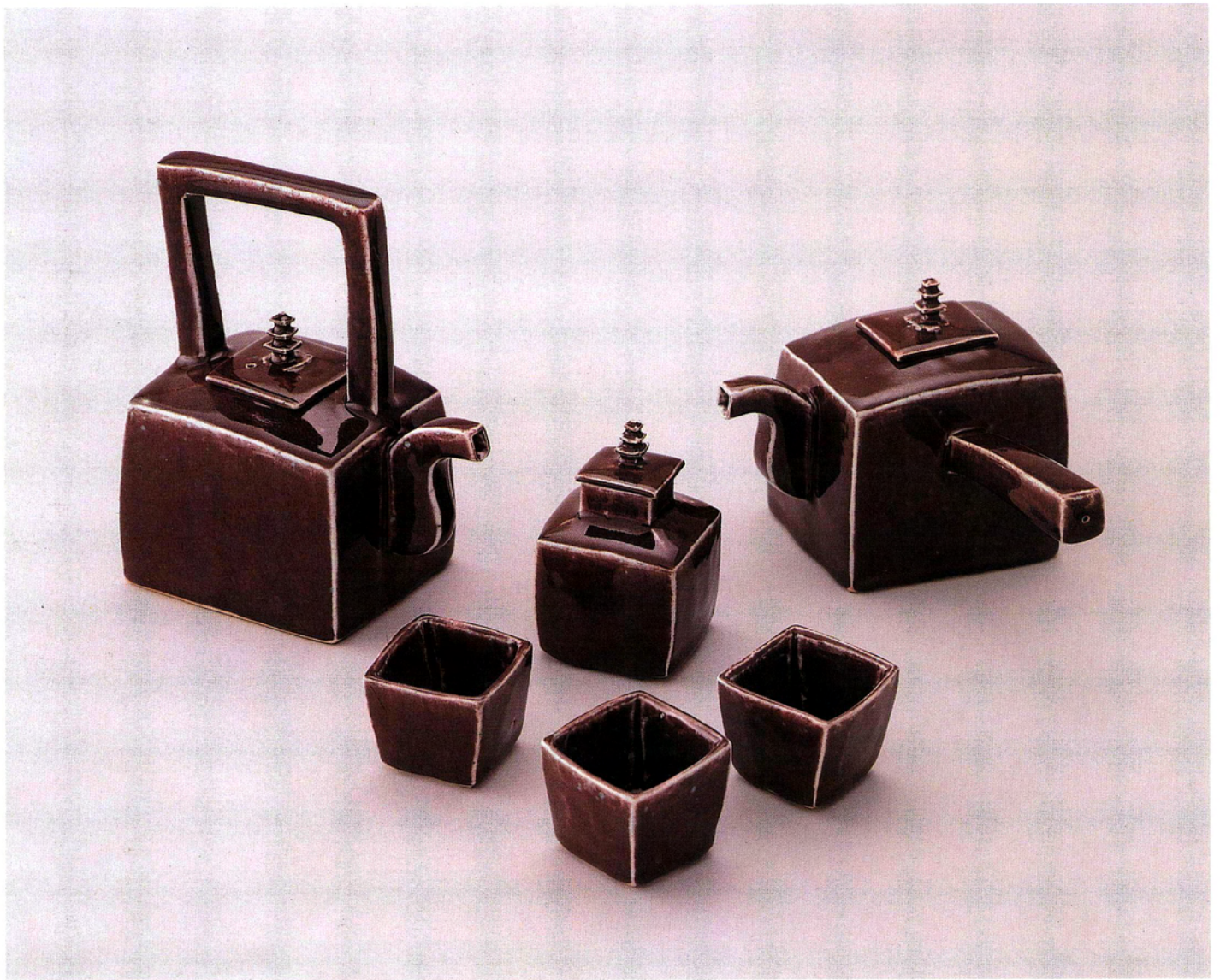
White Porcelain Tea Ware



김규태 | 金奎泰 Kim, Kyu-Tae

백자 진사채 다기 세트(白磁 辰砂彩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with Copper-Red Underglaze



이은아 | 李恩娥 Lee, Eun-A

백자 양각 해바라기문 다기 세트(白磁 陽刻 葵文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with Carved Sunflower Design



김선심 | 金先心 Kim, Sun-Sim

백자 음각 모란문 다기 세트(白磁 陰刻 牡丹文 茶器)

White Porcelain Tea Ware with Incised Peony Design



# 내용누락

p.59-60

오향종 | 吳香鍾 Oh, Hyang-Jong

분장 옹기 다기 세트(粉粧 甕器 茶器)

Onggi Tea Ware with Underglazed White Slip



이천수 | 李天洙 Lee, Cheon-Soo

회유 다기 세트(灰釉 茶器)

Tea Ware with Stoneware



박종훈 | 朴鍾勳 Park, Jong-Hoon

장식 다기 세트(裝飾 茶器)  
Decorated Tea Ware



신현철 | 申鉉哲 Shin, Hyun-Choul

청자 연잎 다기 세트(靑磁 蓮葉 茶器)

Celadon Lotus Leaf-Shaped Tea Ware

분청 다기 세트(粉靑 茶器)

Buncheong Tea Ware

흑갈유 다기 상(黑褐釉 茶器 床)

Tea Table with Black and Brown Glaze



류동문 | 柳東文 Ryu, Dong-Moon

다기 세트(茶器)

Tea Ware



이경효 | 李卿孝 Lee, Kyung-Hyo

백탁유 다완(白濁釉 茶碗)

Stoneware Tea Bowl with Tenmoku Glaze



# 한국 차문화의 특성

박동춘\_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소 소장

## 1. 차나무의 특징과 종류

차나무는 동백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관목으로 종자식물이며 반음반양에서 잘 자라는 음성 식물이다. 초의 스님은 『동다송(東茶頌)』에서 난석(爛石)과 계곡에서 자란 차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차나무는 9~11월에 흰색 꽃이 피며 실상화(實相花)라 하여 꽃과 열매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지구상에는 대략 600종의 차나무과 식물이 있다. 열대·아열대 난대 온대지방에 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아시아에는 대략 10종이 분포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대략 6종이 자라고 있다.

차나무는 주로 온대지역에서 자라는 소엽종과 열대지방에 널리 분포 되어 있는 대엽종(大葉種)으로 나눌 수 있다. 잎이 작은 소엽종(小葉種)은 주로 녹차를 만드는데 쓰이고, 잎이 큰 대엽종은 오롱차나 보이차 혹은 홍차 등의 발효차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차 수종은 대개 자생(自生, 혹은 재래종) 소엽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에 개량한 야부기다종이 보성, 강진, 광주 지역에 심어져서 현재 보성일원의 다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되었다. 차나무의 북방한계는 북위 33°~35°로 전라북도 김제, 남원이며 남방으로는 제주도까지 넓게 분포 되어 있다. 차의 주요 생산지는 보성을 비롯하여 강진, 광양, 구례, 해남, 하동, 산청, 순천 등으로 여러 지역에 고루 퍼져 있다.

## 2. 차의 분류

차는 차나무에서 채취한 어린잎을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써 음료의 총아(寵兒)이다. 차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차(雨前茶), 곡우차(穀雨茶), 조차(早茶), 만차(晩茶),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혹은 봄차, 여름차, 가을차라고도 한다. 또한 차 잎의 크기에 따라서 세작, 중작, 대작 등으로 분류하며, 차나무의 생육 환경과 방법에 따라 죽로차, 암차(岩茶), 야생차, 재배차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차품을 나타내는 차의 별칭일 뿐이다. 차품의 분류는 제다의 방법에 따라 불 발효인 녹차가 있고, 여기서 특히 녹차는 찻잎의 살청 방법에 따라 덩은차, 찢차로 분류한다. 반 발효차인 오롱차 계열과 완전 발효 형태인 홍차, 보이차, 흑차로도 나눌 수 있으며, 차 품의 형태에 따라 덩어리로 된 단차, 잎차 형태로 된 산차(散茶)가 있고 가루로 된 말차로 분류 할 수도 있다.

### 3. 한국 차 문화의 특성

#### 1) 차의 기원

차는 물에서 연유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지(認知)가 점점 발달하면서 몸에 이로운 물질을 첨가하여 식물의 잎이나 꽃, 열매, 뿌리를 이용한 약이나 식음료(食飲料)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단군시대 토민(土民)들이 백두산 산정(山頂)에서 자생하는 석남과(石南科) 철쭉 종류를 이용하여 백산차(白山茶)를 만들어 마셨다는 기록으로 초기 차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초기의 차는 원료의 변천에 따라 송차(松茶), 구기자차, 당귀차, 속차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었다. 원래 다양한 형태의 마실 거리를 즐겼던 우리 민족은 이러한 종류의 차를 응용, 발전시켰고, 차나무의 어린잎을 채취하여 차로 응용한 시기는 삼국시대 이후라 할 수 있다.

#### 2) 차 문화의 전래

문화는 자생성(自生性)과 모방(模倣)이라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는 상호교류와 수용을 통해 변화·발전되어가며 그 민족의 풍토성(風土性)과 기호성(嗜好性)이 생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타 문명과의 교류를 수반하여 상호 전파와 수용을 통해 그 민족의 풍토성과 기호성이 함의(含意)된 개별요소로써 고유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차문화도 타 지역 문화와의 모방 및 교류를 통해 토착적(土着的)인 문화와 융화(融和)되면서 한국적인 특성과 고유색을 가진 차 문화를 이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음차 문화는 고대로부터 일정한 형식이 있었을 것이며 차나무를 이용한 음다(飲茶)의 풍속에는 토착적인 차와 전래차(傳來茶)가 이용되었을 것이다. 차 문화에 있어서도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문화를 흡수하여 토착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수한 고유성을 가진 문화로 점진적인 발전에도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차 문화 전래설은 인도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설과 지정학적(地定學的)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설로 크게 나뉜다. 인도로부터의 유입설은 가야국 수로왕(首露王) 때 남인도 아유타국에서 허 왕후가 불상, 불경과 함께 차를 가지고 왔다는 설로, 김해 지역에 차와 관련된 지명과 아삼종 차나무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통해 그 개연성(蓋然性)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3) 차 문화의 전개

한국은 음다(飲茶)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 음다(飲茶)의 기원은 단군 시대로 올라가며, 3세기에는 이미 신의 공양물(供養物)로 차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 이 당시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물질로 생각되었다.

신문왕(681~692) 때 설총이 지은 화왕계(花王戒)에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써 정신을 맑게 한다.

膏粱以充腸茶酒以清神…

라 한 것은 차가 정신을 맑게 하는 데 쓰였던 예이며, 이를 통해 7세기에 음다(飲茶)가 일부 귀족계층에서 인식되고 있음도 추측할 수 있다.

경덕왕 때 충담선사가 중삼(重三, 삼월삼일) 중구일(重九日, 구월구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올렸다고 하는 기록은 수행승 사이에서 차가 공양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라말려초(羅末麗初)는 차문화가 단순한 식음료(食飲料)와 약용의 수준을 넘어 이미 귀족 문화로 자리 잡았던 시기이다. 특히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물질로 인식되면서 왕이 내리는 귀중한 하사품(下賜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차의 유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문헌적인 사료(史料)로 흥덕왕 3년 입당사(入唐使)였던 대렴(大廉)이 귀국하면서 차씨를 가져와서 왕의 명령으로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차는 이미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차의 본격적인 유입(流入)과 음다(飲茶)의 확산은 선종(禪宗)의 유입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9세기 대렴에 의해 차씨가 들어 온 것은 차에 대한 신라인의 자연스러운 관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미 음다(飲茶)는 귀족층의 관심사였으며 차는 귀중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입당사(入唐使) 대렴이 가져 온 차씨를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리산에는 흥덕왕의 스승이기도 했던 혜소가 귀국하여 옥천사(현재 쌍계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지리산의 기후가 겨울에도 춥듯이 필만큼 따뜻하여 아열대 식물인 차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었던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차씨를 귀하게 여기고, 차종에 대한 이해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차의 시험적인 시배(施培)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말 차의 유입과 확대에는 도당(渡唐) 유학파인 수도승, 숙위(宿衛), 유학생, 상인들의 역할이 컸다. 이미 선종에서 수행에 음다(飲茶)가 일반화되었던 중국의 수행 풍습에 익숙했던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유학승들은 귀국하면서 차의 유입에 적극성을 띄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상무역(海上貿易)이 활발했던 신라 말에는 지방 세력이 성장하여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중국 연안 지역과 교역하였으며, 이미 장보고가 해상 세력을 장악하고 있어서 양자강 하류에까지 신라 거류민의 활동이 넓어짐으로써 중국과의 물류교류가 확대 되었다. 9세기 엔인(圓仁)의 『입당구법 순례행기(巡禮行記)』에 신라인 통역관에 의해 차를 공급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아 신라 거류민의 활발한 교역 활동에 차가 주요 물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보아 음다(飲茶) 풍속이 귀족층에서 부유한 일반민까지 확대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때에는 왕실의 음다 풍속이 활발하였다. 고려 왕실의 팔관회(八關會)나 수륙제(水陸祭)는 중국 상선이 배를 출항 할 만큼 국가의 큰 행사였는데, 고려 성종 원년에 최승로의 상소에

공덕체에 즈음하여 왕께서 친히 차를 가지고 보리를 가시니 성체가 피로할까 염려됩니다.

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 왕실에서는 다사가 일상화된 일이었다. 또한 다사는 단순한 음다뿐만 아니라 귀빈을 접대할 때 구체적인 의례를 갖춘 왕실의 일상적인 행사의 하나였는데, 송나라의 서공이 쓴 『선화봉사宣和奉使고려도경』(1123)에 의하면

무릇 연회에는 조정에서 차를 다린다. 은하로써 덮고 천천히 걸어서 차를 올린다. 차가 다 돌려졌다고 하면 마실 수 있는데 차가 식어서 마실 수 없었다.

라 하여 연회에서 차가 순차를 갖춘 의례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고려 때는 유차(孺茶), 노아차(露芽茶), 조아차(早芽茶), 대차(大茶) 등의 차품이 왕실에 공납 되고 있었으며, 왕실의 하사품 중에는 용봉단차(龍鳳團茶) 등도 있었으므로 중국의 명차도 교역을 통해 유통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음다 풍속이 중국에서처럼 일반민까지 대중화 되지 못하고 귀족층과 문사 수도승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배 지역의 제한성 때문이었다. 차는 아열대 식물로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는 차가 자랄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광작이 어려웠다. 또한 채다 시기가 농번기와 맞물려 있어서 웬만한 경제력을 가지고는 차를 마시기 어려웠다. 고려시대의 차 문화는 이렇게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고는 하나 중국과의 교역으로 왕실과 귀족층 및 일부 수도승들의 차 수요는 충당하였으며, 일부 문사나 수행자들은 차가 가지는 담백한 이치에 맞게 고상한 인품의 교류 매개체로 차를 음용하였다.

고려시대의 차 문화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발달된 음다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사치에 빠져 조선이 개국하면서 타파해야 할 문화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화려한 차문화를 기피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던 조선시대는 외형적인 면은 쇠퇴하였으나 형식과 사치에 빠졌던 차 문화가 차의 본질적인 면에서 훨씬 발전된 양상으로 변모하였던 시기였다.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다방(茶房)이 조선 시대까지 제도적으로 남아 있었고 다시(茶時)가 있어서 차를 마시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호 이익의 『성호쇄설』에 다시(茶時)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성상소감찰다시(城上所監察茶時)라는 말을 비록 사람들이 외우고 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한다. 성상소라는 것은 옛 궁궐의 성장(城牆) 위라는 뜻인데 그 당시 대원들의 회의소로써 간관(諫官) 중에 간을 행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감찰이 교대로 회의를 하고 파하는 것을 다시라 하는데 차를 마시고 파하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음다 풍속의 격조는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성현(成俔)의 『용재총화 齋叢話』에

상곡 이상선이 고공도공을 시켜서 창 밖에서 차를 다리라 하였다. 찻물이 새어 나아가서 다시 다른 물을 첨가하였다. 이공이 맛을 보고 이 차에 너는 두 가지 생수를 첨가 했구나.

라 한 것을 보면 차를 마시는 모습이 형식적인 면을 타파하고 차의 본질인 품천의 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상곡 이행(桑谷李行, 1352~1433)은 품천(品泉)에 대해 일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충주 달천(達川)의 물을 제일로 꼽았고, 한강 가운데로 흐르는 우중수(牛重水)를 두 번째로 쳤으며, 속리산 삼타수(三陀水)를 세 번째로 놓았다.

김종직(1431~1492)은 『점필제집 畢齊集』에서 그가 함양군수로 부임한 후 다세(茶稅)에 대한 고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상공할 차가 이 고을에서는 나지 않는데도 해마다 백성들에게 차세가 부과되었다. 바칠 차를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쌀 한 말에 차 한 홑과 바꾸었다.

중략... 엄천사 북쪽의 대 숲 속에서 몇 그루의 차나무를 얻어서 차 밭을 가꾸도록 하고 그 부근 백성의 땅을 보상하고 사드려 그 뒤 제법 번식되어 차밭에 고루 퍼지니 4~5년만 지나면 상공할 액수를 채우리라.

이 기록에서 고려시대에 왕실의 수요를 위해 공급할 차를 만드는 다소(茶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다소는 사찰을 중심으로 공납소(貢納所)를 두어 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까지도 화염사의 납면차(蠟面茶)가 있었고, 불회사의 전차(錢茶), 보림사의 청태전(靑苔錢), 통도사의 다소촌(茶所村) 등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공납차와 차의 산지를 중심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무려 34개소의 토공물품으로 작설차나 차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점필제집의 기록은 고려 이후 조선 전기시대까지 일정한 수준의 다사가 궁중을 중심으로 일부 문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국 차문화는 정유왜란 이전 16세기경에는 급격히 쇠퇴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조 31년(1598)에 명나라의 양호가 선조에게 ‘남원에서 나는 차를 보이면서 차의 질이 우수한데 왜 마시지 아니하는가’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선조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의 음다 풍속은 상당히 생활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차가 나는 산지에서 감기나 이질에 차를 상비 약으로 이용할 만큼 차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갔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격조와 이취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지를 가지고 있었고 차를 고아한 벗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국 차문화의 개안은 후기 실학파인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해거도인 홍석주, 자하 신위 등에 의해 차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시작되었다.

청대의 걸출한 학자였던 완원(阮元)의 태화쌍비관(太華雙碑館)에서 용봉승설(龍鳳勝雪)을 대접받고 차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자신의 별호(別號)를 승설도인이라 칭할 만큼 차의 높은 인식자요, 감식자였던 추사 김정희와 조선후기 선승으로 차와 선, 시와 그림에 능했던 대선승 초의(草衣) 의순은 한국 차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 찾아 놓았던 선인들이다. 정조의 부마인 홍석주의 요청에 의해 초의 의순이 쓴 『동다송 東茶頌』은 한국차의 우수성과 특성을 칭송하였고, 한국차를 맑고 시원한 차품으로 발전시켰다. 초의 의순은 자신이 직접 차를 만들고 물을 감별하였으며, 수행과 일치된 정신세계의 차 문화를 이룩하여 한국 차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에 의해 한국의 차 문화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강진에 유배되었던 다산 정약용은 아암 혜장과의 교류로 차를 알게 되었으며 후학들과 다신계를 맺어 차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구를 지속했던 실천가요, 조선후기의 실학자였다. 그는 『각다고 擣茶考』에서 차를 통한 부국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차의 안목자들에 의해 한국의 차 문화는 다시 꽃피울 자양분이 만들어졌다.

#### 4) 음다와 제다법의 변천

신라시대의 음다법은 당(唐)대의 음다법과 비슷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대의 음다법은 덩어리로 만든 차를 불에 구운 후 차를 맷돌에 갈아 생강이나 보리를 섞어 죽처럼 끓이고, 위에 뜨는 차말(茶沫)을 떠내어 마시는 방법이었다. 진감국사 대공탑비에

당나라 명차로써 공양하는 자가 있으면 쏘으로 돌솥에 물을 끓여 가루를 내지 않고 다린다.

有以漢茗爲供者則以薪 石釜不爲屑而煮之

라 하여 이 당시 음다법은 단차를 불에 구어 가루로 만들어 죽처럼 끓이는 방법이었으나 수행자였던 진감국사는 번거로움을 피해 덩이차를 끓은 물에 넣어 다려 마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탕법(湯法)의 번거로움을 피해 차가 가지는 본질만 취할 뿐이라는 것이다.

경덕왕(742~765)때에 충당사가 왕에게 차를 바쳤을 때 앵통에 다구가 가득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용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당시에 시문에 나타난 음다 풍습은 돌솥에 차를 다린다는 표현이 많고, 점다(點茶), 팽다(烹茶), 자다(煮茶), 철음(啜飲) 등의 표현이 있어서 이런 유형의 차 우리는 법이 유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8세기경 육유의 『다경』 저술 이후에는 차에 소금만을 넣어 마시는 탕법으로 발전되었으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보리나 생강 등을 넣고 차를 끓였던 탕법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고려 성종 원년 최승로의 상소에 차와 보리를 직접 왕이 갈았다는 표현에서 고려시대의 음다법도 차에 보리를 섞어

마시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익제난고』에 송광화상이 신차를 보냈기에 시를 보낸다는 시에

술바람 부는 듯 돌술에 물 끓는 소리  
차기 잔에 맴도는 무늬 꽃망울을 토하는 듯...

하다고 하였으며 이자의 『화한집』에

가는 조명은 난봉의 그림자를 머금었고  
이향나는 새로 간 차 말은 자고새의 무늬...

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단차를 갈았을 때의 모습과, 뜨거운 물에 찻가루를 넣고 저을 때 유색의 꽃 같은 포말(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육우의 『다경』에 차를 마시는 법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이어 마셔야한다. 무거운 것은 아래에 엉기고 정영한 것이 위에 뜬다. 만약 차가워지면 정영한 기운이 내려가서 없어진다.

라고 하였으니 뜨거운 차를 마셨을 것이다.

『동국이상국집』에 ‘운봉에 머무르는 노규선사가 조아차를 얻어 나에게 보여 주었다’라는 시에

수고롭게 차를 따서 단차를 만들어  
남보다 먼저 임금께 올리네

라고 한 것은 승려들이 단차를 만들어 조공품으로 바쳤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고려도경 등에 남아있는 토산차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이 시기에는 차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차를 마셨던 조선에서는 산차류인 잎차를 마셨으며, 탕법도 고려시대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산차의 제다법은 차잎을 따서 솥에 튀어 비빈 후 다시 은근한 솥에 말려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끓는 물에 차잎을 넣고 우려 마시는 방법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튀어서 만든 차에 끓은 물을 부어 우려고, 다 우려지면 잔에 고루 따라 마시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물자가 귀했던 산간 지역 사찰이나 민가에서는 찻잎을 찌서 단차처럼 만들어 벽에 걸어 두었다가

감기에 걸리면 생강을 넣고 끓여 마시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조의 제다법은 산차류와 단차류의 제다법이 함께 전승되었고, 탕법은 단차류라 하나 잎차처럼 끓은 물에 덩이차를 넣어 우려 마시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선 후기 대흥사 스님 범해 각안선사의 <다약설>에는 이질에 걸려 뜨거운 차를 끓여 마시고 나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900년대 대흥사 탕법이 옹기 주전에 물을 끓여 차를 넣고 잠시 후 잔에 나누어 마셨다는 응송 박영희 스님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음다법은 단차를 갈아 보리나 생강을 넣고 끓이는 자다법과 산차를 우려 마시는 법, 단차를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 혼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5) 한국 차 문화의 특징

한국은 고유한 차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차문화는 한국인이 지향했던 가치를 반영하여 맑고 담백한 차품과 격조를 가지고 있다. 한민족은 순수한 정신을 지향했던 민족답게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보다는 단일성을 고수하여 궁구한 내면의 가치를 지닌 고유한 차 문화를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다. 차 문화가 지향한 가치는 궁극적으로 예술이나 정신수양의 지향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차는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지만 차의 덕성이 검박한 군자와 같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기질이 담백한 것을 좋아하여 차품에 있어서도 시원하고 정갈하고 담백한 것을 즐겼다. 문화의 고유성은 그 민족이 처한 자연 환경을 닮아서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풍토에서는 칼칼한 차색과 맛, 기운을 중시하였다.

차는 처음에 인간의 생활에 약용과 음료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지향하는 높은 이상의 가치에 부합하여, 맑은 덕성을 주는 물질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특히 차의 생리 중에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덕성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 신라 시대의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차의 약리가 중요하게 인식 되었으며, 신라 말기에는 차가 수행자의 수행을 돕고 수행과 차가 같은 경지로 인식되었다. 특히 선종과 결합된 차는 더욱더 맑은 기운을 주는 물질로 인식되어 차가 선미와 같다는 차선일미의 최고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오면서 차는 귀족의 일상사가 되고, 기준을 갖춘 의식의 예와 절차를 갖추게 되어 귀빈을 맞을 때나 국가의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를 가까이 하는 계층은 수도승이나 탈속이 예술의 최고 지향점이라고 여겼던 문학예술인이었으며, 이들이 차의 진정한 애호가였다.

따라서 차는 속된 것을 멀리하고, 맑고 고상한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벗이며, 맑은 물질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19세기 금령 박영보는 『남다병서』에서 ‘차의 덕성이 군자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신선이 되고 가령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속된 인사가 되는 것에서 멀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차는 한국의 풍토에 알맞게 맑고 뜨거운 탕수를 견디고, 정도에 넘치지 않는 담황색에 녹빛이 은근히 감도는 탕색을 최고의 차색으로 드러내며, 탕법에 있어서도 정, 중을 강조하였다. 간결하고 아취 있는 담백한 찻 자리를 귀히 여겨 초의 의순은 『동다송 東茶頌』에서

명월로 촛불을 삼고 벼를 삼아서  
백운을 자리로 삼고 병풍도 만든다.  
대나무 소나무 소리 모두 서늘하다.  
맑고 서늘한 기운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깨우는 구나  
오직 백운과 명월 두 객만을 허락하니  
도인의 고상한 자리 이것이 최고로구나

라고 하여 가장 멋있고 격조 있는 자리와 벼를 자연이라고 하였다. 이는 물아가 일체되는 아름다운 차의 목표였다. 초의 의순에 의해 구현된 한국 차의 전형은 녹색을 최대한 제거한 제다법의 발견으로 맑고 시원하며 기미가 있는 차품을 의미한다. 초의의 다법은 한국적인 풍토와 기호성을 갖춘 차품을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려도 차의 향과 빛, 맛과 기운에 손상이 없는 황녹색의 차품으로, 이 다법은 응송 박영희에 의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여 백

# Biography

여 백

## 1. 김규태 (金奎泰) Kim, Kyu-Tae

1969년 출생

국민대학교 공예미술학과, 동 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

단체전 \_

2004 일본 관서 한국문화원 개원5주년 기념 초대전 (오사카 한국문화원)

2003 흡소리 전 (갤러리 소리연)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2003 제1회 대한민국 문화관광상품대전 특선

현 \_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이끼언덕 도자기작업실 운영

Born in 1969

He received B.A., M.F.A. at KookMin Universit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Invitational Exhibition, Korean Culture Center, Osaka, Japan

2003 the Sound of clay, Gallery SoRiYeon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2003 Special prize for the 1st Korean Souvenir Competition

Present, lecturer at KookMin University, managing IKiUnDuk pottery

## 2. 김대희 (金大熙) Kim, Dae-Hee

1952년 출생

1969년 고영재 선생을 사사하여 도예계에 입문

개인전 \_

2001 우송 김대희 30년전 '흙의 마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순회전시)

단체전 \_

2003 명인 5인전 (백상갤러리)

2002 일본 도야마 다이와 백화점 초대전

현 \_ 우송도에 운영

Born in 1952

Solo exhibition :

2001 30 years of Kim, Dae-Hee, travelling exhibition : Seoul, Busan, DaeGu, GwangJu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Exhibition of 5 Masters, BackSang Gallery

2002 Invitational Exhibition, DoYaMa DaiWa Department Store, Japan

Present, managing WooSong pottery

## 3. 김상만 (金相萬) Kim, Sang-Man

1967년 출생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동 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

시드니대학교 예술대학 도예과 졸업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책상 위의 친구들전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999 세계도자기엑스포 생활도자 공모전 입선

현 \_ 담담도예공방 운영

Born in 1967

He received B.A., M.F.A. at KookMin University, Korea and B.A. at Sydney University,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Friends on the table, Korea Institute of Craft Promotion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Gran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Accepted prize for the Living Ware Competition of World Ceramic Exposition

Present, managing Dam-Dam pottery

## 4. 김선심 (金先心) Kim, Sun-Sim

1982년 출생

명지전문대학교 공예디자인과 졸업

단체전 \_

2004 한국 우수 공예품 대전 (주 뉴욕, 일본, 프랑스, LA 한국문화원)

2003 백자 식기전 (공화랑)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은상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3 행주 미술대전 입선

현 \_ 명지전문대학교 도자제품 디자인 연구소 연구원

Born in 1982

She graduated from MyongJi College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Grand Exhibition of Korean Selected crafts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Japan, France, L.A.)

2003 White Porcelain Livingware exhibition (Gong gallery)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Silver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Accepted prize for Grand Art Exhibition of HeangJu Present, researcher at Ceramic-Design Institute of MyongJi College

## 5. 김윤태 (金允泰) Kim, Yoon-Tae

1936년 출생

1950년 숙부님을 사사하여 도예계에 입문

1973년 상주요 건립

개인전 \_

2001 고려 다완 재현 개인전 (부산 부일갤러리)

1991 일본 동경 한국문화원 전시 (동경 한국문화원)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0 조부님으로부터 아들까지-4대 부자전 (안국갤러리)

수상경력 \_

1984~1994 전승공예대전 3회 입선

전 \_ 1989~1995 경남 전승 도예협회장 역임

현 \_ 부산 경남 한국 전통도예협회장, 상주요 운영

Born in 1936

He established SangJuYo pottery in 1973

Solo exhibition :

2001 BuSan Bull gallery

1991 Korean Cultural Center, Tokyo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0 From grandfather to son -4 generation exhibition, AhnKook Gallery

Selected award records :

1984~1994 3 times Accepted prize for Tradi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SangJuYo pottery

## 6. 김응한 (金應漢) Kim, Eung-Han

1935년 출생

1950년 이천도요 설립

개인전 \_

일본 나라, 오사카 및 부산에서 사발전 개최

수상경력 \_

제13회 대한민국 국전 입선

관광 민예품 경진대회 금상

전 \_ 한국 육우다경 연구회, 부산 차인 연합회 및 한국 중화 치문화 교류회 고문 역임

현 \_ 좌봉도에 운영

Born in 1935

He established IcheonDoYo pottery in 1950

Solo exhibition :

Tea Vessel Exhibition (Nara, Osaka, Busan)

Selected award records :

Accepted prize for 13th National Competition of Korea

Gold prize for Korean Folk Crafts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JwaBongDoYae pottery

## 7. 김태한 (金太漢) Kim, Tae-Han

1939년 출생

1988 목전요 설립

개인전 \_ 일본 전국에서 400여회 개최

단체전 \_

2002 캐나다 캘거리 한국 도자전

2000 한국다기 명품 100인전 (국립민속박물관)

현 \_ 목전요 운영

Born in 1939

He established MookChunYo pottery in 1988

Solo exhibition :

about 400 times of solo exhibition in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2 Special Exhibition: Korean Ceramics, Calgary

2000 Korean Tea Vessel Masterpieces by 100 Ceramist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resent, managing MookChunYo pottery

## 8. 김판기 (金判基) Kim, Pan-Ki

1958년 출생

개인전 \_

2001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입선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제32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금상

현 \_ 지강도요 운영

Born in 1958

Solo exhibition :

2001 Korea Institute of Craft Promo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Selec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Gold prize for the 32th Craft Arts Competition, Kyonggi-do Present, managing JiGangDoYo pottery

## 9. 김 평 (金 平) Kim, Pyung

1967년 출생

1990년 부친 김태한 문하 도예입문

단체전 \_

2004 다기 7인전 (통인화랑)

2003 세계 차문화대전 (무역센터 코엑스)

수상경력 \_

2004 제1회 문경 전통 차사발 공모전 특선

2003 제1회 전국 차도구 공모전 입선

현 \_ 묵전요 운영

Born in 1967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Tea wares by 7 potters, TongIn Gallery

2003 Tea World Festival 2003, Coex (Convention and Exhibition,

Seoul)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Special prize for the 1st MunGyeong Traditional Tea Vessel Competition

2003 Selected prize for the 1st National Tea ware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MookJunYo pottery

## 10. 류동문 (柳東文) Ryu, Dong-Moon

1959년 출생

개인전 \_ 2회

단체전 \_

2004 Tea & People 초대전 (백상갤러리)

2003 한국 명장 초대전 (성신여자대학교)

수상경력 \_

2004 제1회 문경 전통 차사발 공모전 은상

2000 제1회 전국 사발 공모전 금상

현 \_ 도연요 운영

Born in 1959

Solo exhibition :

2 times of Solo exhibi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Invitational Exhibition: Tea&People, BackSang Gallery

2001 Invitational Exhibition: Korean Master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Silver prize for the 1st MunGyeong Traditional Tea Vessel Competition

2000 Gold prize for the 1st National Tea Vessel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DoYeonYo pottery

## 11. 민영기 (閔泳麒) Min, Yeong-Gi

1947년 출생

1973년 문공부 추천으로 일본 13대 中里太郎右衛門 선생 사사

1978년 산청요 축요

1990년 일본 林屋晴三, 赤沼多佳 선생으로부터 다완 지도, 다완제작에 입문

개인전 \_

2001 고려다완전 (일본 壺中居 화랑)

1996 정호다완 개인전 (일본 壺中居 화랑),

##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한국·대만·일본 국제도에 생활예술전 (대만),

## 수상경력 \_

1983 제13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상공부 장관상

1983 제13회 경남공예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현 \_ 산청요 대표

Born in 1947

He established SanChungYo pottery in 1978

## Solo exhibition :

2001 JoSeon Tea Vessel, Japan

1991 Chawan, Japan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Korea-Taiwan-Japan International Living Arts, Taiwan

## Selected award records :

1983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Award, the 13th Na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Award in Excellency for Craft Arts Competition, GyeongNam

Present, managing SanChungYo pottery

## 12. 박부원 (朴富元) Park, Boo-Won

1940년 출생

## 개인전 \_

1987 제6회 개인전 (일본 동경 긴자 마사사카야 백화점 화랑)

1982 세종문화회관

##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0 한국 다기 명품 100인전 (국립민속박물관)

현 \_ 도원요 운영

Born in 1940

## Solo exhibition :

1987 the 6th solo exhibition, Japan

1982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0 Korean Tea Vessel Masterpieces by 100 Ceramist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Present, managing DoWonYo pottery

## 13. 박성욱 (朴星昱) Park, Sung-Wook

1972년 출생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

## 단체전 \_

2004 일본 관서 한국문화원 개원5주년 기념 초대전 (오사카 한국문화원)

2003 한·일 도기전 - 흙의 여정 (영암도기문화센터)

##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현 \_ 강릉대학교 산업공예학과 도예강사, 박성욱 도예작업실 운영

Born in 1972

He received M.F.A. at KookMin University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Invitational exhibition, Korean Culture Center, Osaka, Japan

2003 the Journey of Earth: Korean-Japanese Earthenware Exhibition, the YeongAm pottery Culture Center

##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Present, lecturer at KangNung University, managing ParkSungWook Studio

## 14. 박종훈 (朴鍾勳) Park, Jong-Hoon

1949년 출생

단국대학교 응용미술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 전공 졸업

개인전 \_ 15회

## 단체전 \_

2001 한국 현대 도자전

2000 한국 다기 명품 100인전 (국립민속박물관)

## 수상경력 \_

1984 제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1979 제15회 대한 미술가 협회 공모전 대상

현 \_ 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동 대학 도예연구소 소장, 한국 사발학회 회장

Born in 1949

He received B.A. at DanKook University, M.F.A. at HongIk University.

Solo exhibition :

15times of solo exhibi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Korean Contemporary Ceramics

2000 Korean Tea Vessel Masterpieces by 100 Ceramist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elected award records :

1984 Excellency Prize for the National Competition of Korea

1979 Grand Prize for the 15th Korea Fine Arts Association Competition

Present, professor at DanKook University, president of Korean Tea Vessel Association

## 15. 방철주 (方徹柱) Bang, Chul-Ju

1922년 출생

1971년 동국요 설립

개인전 \_

국내 4회 (1976~1979)

일본 8회 (1973~1994)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998~2000 한·중·일 국제 전통도에 작가전

수상경력 \_

한국 전승공예대전 입상 8회, 입선14회 (1978~1994)

대한민국 국회의원, 상공부장관, 문화부장관 등 국내외 인사들로부터 감사패 수여

현 \_ 동국요 운영

Born in 1922

He established DongKook pottery in 1971

Solo exhibition :

1976~1979 4 times of solo exhibition in Korea

1973~1994 8 times of solo exhibition in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1998~2000 Korea-China-Japan International Traditional Ceramics

Selected award records :

1978~1994 Selected 22 times, Korea Tradi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He was awarded appreciation plaques from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so on

Present, managing DongKookYo pottery

## 16. 서동규 (徐東圭) Seo, Dong-Gyu

1938년 출생

1956년 방곡도요 입문

개인전 \_ 2회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993 한국 무역진흥공사 주최 우수상품 전시회 (일본 동경)

수상경력 \_

1998 대한민국 국전 입선

1995 전국 민예품 경진대회 입상

국무총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표창

2000년 28호 명장으로 선정, 2002년 지방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

현 \_ 방곡도요 운영

Born in 1938

He established BangGokDoYo pottery in 1956

Solo exhibition :

2 times of solo exhibi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1993 Grand Exhibition of Korean Selected crafts by KOTRA, Tokyo

Selected award records :

1998 Accepted prize for the National Competition of Korea

1995 Accepted prize for Korean Folk Crafts Competition

He won official commendations from the Prime Minister and Ministry of Labor

He was selected 28th master in 2000 and Loc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10 in 2002

Present, managing BangGokDoYo pottery

## 17. 서영기 (徐詠紀) Seo, Young-Gi

1961년 출생

개인전 \_

2004 제4회 개인전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2002 제3회 개인전 (토아트 갤러리)

단체전 \_

1997 경기대학교 개교 50주년 한-중 도자교류전

1993 경남 전승도에 협회전

수상경력 \_

1998 한국 신미술대전 대상 수상

전 \_ 전국 차 도구 공모전 운영위원장(2003) 및 전국 생활공예 공모대전 심사위원장  
(2003), 경기 산업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2002), 전국 생활공예 공모대전 심사위원  
(2001)등 역임  
현 \_ 경기대학교 디자인 공예학부 교수

Born in 1961

Solo exhibition :

2004 the 4th solo exhibition, Busa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2002 the 3rd solo exhibition, ThoArt Galle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1997 Korea-China Ceramic Artists Exchange Exhibition

1993 GyeongNam Traditional Craft Arts Association member's  
exhibition

Selected award records :

1998 Grand prize for New Art Festival

Present,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 18. 손유순 (孫有順) Sohn, Yoo-Soon

1955년 출생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 기술학과 수료

1972년 해강고려청자 연구소에 입문

1990년 소정도예연구소 건립

단체전:

2003 천공의 숨씨를 찾아서 전통속의 향과 향기 (서울 중무형문화재 전수회관)

2003 도자기, 기술과 디자인의 만남 (예술의 전당)

수상경력:

2002 제2회 청자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00 대한민국 도자전 입선

현 \_ 연세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강사, 소정도예연구소 운영

Born in 1955

She completed ceramic techniques course at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She entered HaeGang Institute of Goryeo Celadon in 1972

She established SoJeong Ceramic Studio in 1990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Traditional Craft Arts Exhibitio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Center

2003 Ceramics: the meeting of Technique and Design, Seoul Arts  
Center

Selected award records :

2002 Excellency Prize for the 2nd Celadon Competition in GangJin

2000 Accepted prize for the Ceramic Exhibition 2000 Korea

Present, managing SoJeong Ceramic Studio

## 19. 신현철 (申鉉哲) Shin, Hyun-Chul

1954년 출생

개인전 \_ 12회

단체전 \_

2001 중한 다구도에 명품전 (중국 상해)

1998 한국 도공의 정신전 (성곡미술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2001 중국 의흥 국제 도예전 1등상 수상

현 \_ 신현철 도예 연구소 운영

Born in 1954

Solo exhibition :

12 times of solo exhibi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Masterpieces of Chinese and Korean Tea Ware, ShangHai

1998 Spirits of Korean Potter, SungKok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2001 First Selected prize for the YiXing International Ceramic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ShinHyunChul Ceramic Art Studio

## 20. 오향종 (吳香鍾) Oh, Hyang-Jong

1964년 출생

광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도예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_

1999 제4회 오향종 기와 응기전 (광주 롯데화랑)

1998 제3회 오향종 개인전 - 전통 응기전 (무역센터 현대갤러리, 가나아트 센터)

단체전 \_ 60여회

2003 한국 도자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999 끼가 있는 주전자전 -남도 5인전 (통인화랑)

현 \_ 향용기 연구소 운영, 한국 전통문화학교와 단국대학교 강사

Born in 1964

He received B.A. at GwangJu University, M.F.A. at DanKook University.

Solo exhibition :

1999 the 4th solo exhibition : Vessel and OngGi, GwangJu Lotte Gallery

1998 the 3rd solo exhibition : Traditional OngGi, HyunDai Trade Center Gallery and GaNa Art Center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Talented Tea Pot, TongIn Gallery

Present, lecturer at Dan-Kook University and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managing Hyang OngGi Studio

## 21. 유광열 (柳光烈) Yu, Kwang-Youl

1942년 출생

1960년 부친 해강(海剛) 유근형(柳根滢) 옹과 함께 해강고려청자연구소 설립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0 대한민국 도자전 (이천 설봉공원 내)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금상

1988 제18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현 \_ 해강도자미술관 관장, 해강고려청자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와 청강대학교 겸임교수

Born in 1942

He established HaeGang Institute of Goryeo Celadon with his father, Yu, Keun-Hyung in 1960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0 The Ceramic Exhibition 2000 Korea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Gran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88 President Award, the 18th Na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Present, President of HaeGang Ceramic Art Museum and HaeGang Institute of Goryeo Celadon, adjunct professor at KyungHee University and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 22. 유근형 (柳根滢) Yu, Keun-Hyung

1894년 출생, 1993년 작고

1960년 장남 광열(光烈)과 함께 해강고려청자연구소 설립

1990년 도자기 전문 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설립

수상경력 \_

1928 일본 벳부(別府)박람회 금패 수상

1950 제1회 대한민국 수출 공예품 전시회 기량상 (佳良賞)

1954 제3회 국산품 전시회 문교부장관상

1955 해방 10주년 생산품 박람회 최우수상

1956 캘리포니아 국제박람회 금메달

1981 제6회 진승공예전 국무총리상 등

작고하기전까지 국내외에서 20여 차례의 전시를 개최하였고, 1963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Born in 1894, Deceased in 1993

He established HaeGang Institute of Goryeo Celadon with his Son, Yu, Kwang-Youl in 1960

He established HaeGang Ceramic Art Museum in 1990

Selected award records :

1928 Gold Prize for Beppu Exposition, Japan

1950 Selected Prize for the 1st Korean Export Craft Exhibition

1954 Ministry of Education Award for the 3rd Korean Product Exhibition, Korea

1955 Excellency Prize for Product Exposition, Korea

1956 Gole Medal for California World Exposition, U.S.A.

1981 Award of Prime Minister for the 6th Korea Tradi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He had had about 20 times of internal and external exhibitions.

He was selec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3 in 1963

## 23. 이경호 (李卿孝) Lee, Koung-Hyo

1956년 출생

개인전 \_

1999 제4회 개인전 (국제신문사)

1996 제3회 개인전 (부산일보사 전시관)

단체전 \_

2001 월화대회 초대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99 울산광역시 문화원 초대전

현 \_ 토목요 운영

Born in 1956

Solo exhibition :

1999 the 4th solo exhibition, the KookJe Daily News Center

1994 the 3rd solo exhibition, Busan Ilbo Galle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Invitational Exhibition: Tea Group WoelWha, Jakarta

1999 Invitational Exhibition, Ulsan Culture Center

Present, managing ToGokYo pottery

## 24. 이기조 (李起助) Lee, Ki-Jo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_

1994 이기조 그릇전 (토-아트스페이스)

1989 이기조 도예전 (토아트 갤러리)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0 서울대학교 새천년전 (서울시립미술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현 \_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교수

Born in 1959

He received B.A., M.F.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 :

1994 ThoArt Space Gallery

1989 ThoArt Galle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0 New Millenium Exhibi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Museum of Art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Present,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 25. 이동식 (李東式) Lee, Dong-Sik

1969년 출생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

단체전 \_

2001 한·일 도자기의 생활문화전 (사가현립 큐슈도자문화관)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현 \_ 국립중앙박물관 공예교실 운영

Born in 1969

He received B.A., M.F.A. at KookMin Universit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Korea-Japan Ceramic Livingware Exhibition, KyuShu Ceramic Museum, Japan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Present, Craft Department lecturer at National Museum of Korea

## 26. 이영호 (李英鎬) Lee, Young-Ho

1958년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1 한국 전통도예전 (일본 관서한국문화원)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동상

현 \_ 유산요 운영

Born in 1958

He received B.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Bronze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Present, managing YooSanYo pottery

## 27. 이은범 (李殷範) Lee, Eun-Bum

1969년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개인전 \_

1999 제1회 개인전 (토.도랑)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0 행복을 담은 그릇전 (성보갤러리)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 입선

1999 세계도자기엑스포 생활도자기전 우수상

현 \_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대학원 재학

Born in 1969

He received B.A. at HongIk University

Solo exhibition :

1999 the 1st solo exhibition, Gallery To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0 Table Ware with Happiness, SeongBo Gallery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Excellency Prize for the Ceramic Livingware Exposition

Present, Graduate Student at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HongIk University

## 28. 이은아 (李恩娥) Lee, Eun-A

1980년 출생

명지전문대학교 공예디자인과 졸업

단체전 \_

2004 한국 우수 공예품 대전 (주 뉴욕, 일본, 프랑스, LA 한국문화원)

2003 백자 식기전 (공화랑)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2003 행주 미술대전 특선

현 \_ 명지전문대학교 도자제품 디자인연구소 연구원

Born in 1980

She graduated from MyongJi College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Grand Exhibition of Korean Selected crafts (Korean Cultural Center, New York, Japan, France, L.A.)

2003 White Porcelain Livingware exhibition (Gong gallery)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Special prize for Grand Art Exhibition of HeangJu

Present, researcher at Ceramic-Design Institute of MyongJi College

## 29. 이인진 (李仁鎭) Lee, In-Jin

1957년 출생

Laguna 미술학교, Orange Coast 대학, California 주립대학 Fullerton 수학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도예과, 동 대학원 졸업

California 주립대학 Long Beach 수학

개인전 \_ 11회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3 2003 흙의 여정(영암 도기문화센터)

수상경력 \_

1989 제9회 서울현대도예공모전 대상

현 \_ 홍익대학교 공예과 부교수

Born in 1957

He graduated from Laguna Art School, Orange Coast College an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Also, He received B.A., M.F.A. at HongIk University and finishe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Solo exhibition : 11 times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3 the Journey of Earth: Korean-Japanese Earthenware Exhibition, the YeongAm pottery Culture Center

Selected award records :

1989 Grand prize for the 9th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 Contest

Present, Associate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 30. 이정도 (李正道) Lee, Jung-Do

1953년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_ 4회

2001 제4회 개인전 - 이정도 분청 (Tsubiya Gallery, 일본 나라)

2000 제3회 개인전 - 이정도 도예전 (공화랑)

단체전 \_

2004~2007 From the Fire: 한국 현대도예전 (미국순회)

2003 한국 공예관 개관 2주년 기념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1982 제1회 KBS 생활도예공모전 대상

현 \_ 선은도방 운영

Born in 1953

He received B.A. at HongIk University

Solo exhibition :

2001 the 4th solo exhibition, Tsubiya Gallery, Japan

2000 the 3rd solo exhibition, Gong galle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2007 From the Fire: Korean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rotated in U.S.

2003 Special Exhibition, Korean Craft Cente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2003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82 Grand prize for the 1st KBS Livingware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SunEunDoBang pottery

### 31. 이정환 (李廷圜) Lee, Jung-Hwan

1954년 출생

1975년 清水日品志선생 사사

1983년 주홍요 개설

개인전 \_

1982 이정환 개인전 (일본, 名古屋三越百貨店)

단체전 \_

2003 국제 다문화대전

1997 영남 전통도예전 (대구문화예술회관)

현 \_ 주홍요 운영

Born in 1954

He established JuHulYo pottery in 1983

Solo exhibition :

1982 solo exhibition, Japa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1997 YeongNam Traditional Ceramic Exhibition, DaeGu Art Ceanter

Present, managing JuHulYo pottery

### 32. 이천수 (李天洙) Lee, Cheon-Soo

1965년 출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_ 3회

2002 제3회 이천수 개인전 (우리그릇 麗)

2000 제2회 이천수 개인전 (우리그릇 麗)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21세기 한국 현대도예작가 초대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수상경력 \_

1997 대한민국 공예대전 우수상

1993 서울 현대도예 공모전 우수상

현 \_ 전업 작가

Born in 1965

He received B.A., M.F.A. at HongIk University

Solo exhibition :

2002 the 3rd solo exhibition, URiGuRut Ryu

2000 the 2nd solo exhibition, URiGuRut Ryu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Invitational Exhibition: 21th century Korean contemporary Ceramic Artists,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Selected award record s:

1997 Excellency Prize for the Grand Craft Exhibition 1997 Korea

1993 Excellency Prize for Seoul Contemporary Ceramic Art Contest

Present, potter

### 33. 이학천 (李鶴天) Lee, Hak-Chun

1961년 출생

미국 뉴욕 브리지포트대학원 수료

1979년 칠산도자방 설립

1996년 묵심도요 이전 설립

개인전 \_

2001 일본 오사카 도예전

단체전 \_

1999 영남도예 100인 초대작가

수상경력 \_

1998 전국 기능경기대회 도자기부문 은상

1993 제14회 한국 현대미술대전 현대미술대상  
2002 대한민국 도자기공예 명장 선정  
현 \_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위원, 묵심도요 대표

Born in 1961  
He finished University of Bridgeport, U.S.  
He established ChilSanDoJaBang pottery in 1979 and  
MookSimDoYo pottery in 1996  
Solo exhibition :  
2001 solo exhibition, Osak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1998 Silver prize for National Skills Competition, Ceramic  
department  
1993 Grand prize for th 14th Korea Modern Art Concours  
He was selected Korean master of ceramic in 2002  
Present, managing MookSimDoYo pottery

### 34. 정연택 (鄭淵澤) Chung, Yeon-Taek

1955년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_  
1997년 서울시립미술관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현 \_ 명지전문대학교 공예디자인과 부교수

Born in 1955  
He received B.A., M.F.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 :  
1997 Seoul Museum of Art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Present, Associate Professor at MyongJi College

### 35. 정재효 (鄭再孝) Jung, Jae-Hyo

1963년 출생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다항 속에 서린 삶과 예술전 (광주 의재미술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특선 및 입선  
1999 제29회 전국 공예품 대전 장려상  
현 \_ 조일요 운영

Born in 1963  
He received B.A. at KookMin University(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and graduate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Special Exhibition: Life and Art in Tea Scent, UiJae Art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Special and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9 Encouraging prize for Grand Exhibition of National Craft Arts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JoliYo pottery

### 36. 천한봉 (千漢鳳) Chun, Han-Bong

1933년 출생  
1972년 문경요 설립  
개인전 \_  
2003 일본 동경 갤러리 KYO 도예전  
2001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도예전  
단체전 \_  
2001 한국 전통도자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998 한국 도공의 정신 (성곡미술관)  
수상경력 \_  
1999 경상북도 문화상  
1995년 대한민국 도예명장 수상, 대통령 표창 수상  
현 \_ 문경대학교 도자기공예과 명예교수, 문경요 대표

Born in 1933  
He established MunKyungYo pottery in 1972

Solo exhibition :

2003 Gallery KYO, Tokyo

2001 Asahikawa, Hokkaido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1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1998 Spirits of Korean Potter, SungKok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1999 Cultural award of GyeongSangBuk-do

1995 Korean master of ceramic

He won official commendations from the President of Korea

Present, professor emeritus at MunkYung University, managing

MunkYungYo pottery

### 37. 한일상 (韓日相) Han, Il-Sang

1954년 출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술학과 수료

단체전 \_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2002 한국 다기 명품 특별전 (태평양박물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1996 동아 공예대전 특선

현 \_ 도평요 대표

Born in 1954

He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ompleted ceramic techniques course at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2002 Special Exhibition: Masterpieces of Korean Tea ware, JeJu SulLocCha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1996 Special prize for DongA Craft Arts Competition

Present, managing DoPyoungYo Ceramic Art Studio

### 38. 허상욱 (許庠旭) Huh, Sang-Wook

1970년 출생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동 대학원 공예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_

2001 제2회 개인전 - monochrome (한국 공예문화진흥원)

1999 제1회 개인전 (경인미술관)

단체전 \_

2004 한국 현대 도자기전 (일본 오사카)

2003 한국 도자 특별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수상경력 \_

2004 제1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입선

2003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

현 \_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자기공예 강사

Born in 1970

He received B.A., M.F.A. at KookMin University

Solo exhibition :

2001 Monochrome: the 2nd solo exhibition, Korea Institute of Craft Promotion

1999 the 1st solo exhibition, KyungIn Museum of Fine Art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04 Korean Contemporary Ceramic Exhibition, Osaka

2003 Special Exhibition: Traditional Korean Ceramics, Joseon Royal Kiln Museum

Selected award records :

2004 Accepted prize for the 1st Ceramic Competition of Joseon Royal Kiln Museum

2003 Accepted prize for the 2nd International Competition, World Ceramic Biennale 2003 Korea

Present, lecturer at KookMin University

2004 IAC 한국총회 기념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

발행일 : 2004년 8월 21일  
발행인 : 남기명  
발행처 :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주최 :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 : 2004. 8. 26 ~ 2004. 12. 5  
장소 : 이천 세계도자센터

기획 :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운영부장 : 서정걸  
국제전시팀장 : 강재영  
진행 : 오기영  
국제전시팀 : 사환규, 송지혜, 양소영, 이유진, 이홍원, 최정아  
진행보조 : 김병국, 최중훈

전시지문 및 협조 :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 연구소)  
광호문화재단  
태평양 박물관  
해강도자미술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다도예절학과

원고집필 : 최건, 박동춘  
번역 및 감수 : 문수열

기획편집 : 비엔날레운영부 국제전시팀  
디자인 · 제작 : Designzip  
촬영 : 황헌만  
가격 : 12,000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게 있으며,  
본 재단법인의 서면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69-1 이천 세계도자센터  
Tel. +82-31-631-6504~13 Fax. +82-31-631-6514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This publication is issue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Korean Tea culture and Tea Ware organized by the WOCEF.  
This exhibition is opened in celebration of IAC 2004 General Assembly Korea.  
Icheon World Ceramic Center  
August 26, 2004 ~ December 5, 2004

First Published August 21, 2004 by Nam Ki-Myong, the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CEBIKO Department Director : Suh Jeong-Gurl  
International Exhibition Team Leader : Kang Jae-Young  
Coordinator : Oh Ga-Young  
International Exhibition Team :  
Sa Hwan-Kyu, Song Ji-Hye, Yang So-Young, Rhee Yu-Jean  
Lee Hong-Won, Choi Jung-Ah  
Assistant Coordinators : Kim Byoung-Kuk, Choi Jong-Hoon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invaluable support from Park Dong-Chun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East Asian Tea Culture, the Tea Museum of AmorePacific, the Haegang Ceramic Art Museum, Gwangho Culture Foundation of KwangJuYo, and the Department of Tea Ceremonies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respective texts by Choi Kun and Park Dong-Chun  
Translated by Moon Soo-Yeol

Edited by CEBIKO Department International Exhibition Team  
Design and Printed by Designzip  
Photographs by Hwang Heon-Man

Copyright 2004 by the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f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except in the context of reviews.

Icheon World Ceramic Center, San 69-1, Gwango-dong, Icheon City,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Tel. +82-31-631-6504~13 Fax. +82-31-631-6514  
cebiko@wocef.or.kr



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WORLD CERAMIC EXPOSITION FOUNDATION